

청주 송절동 유적의 철기유물 변화

서문영*

-
- I. 머리말
 - II. 유적의 현황과 검토대상 유물 선정
 - III. 철기의 형식분류와 편년
 - IV. 철기유물 변화의 양상과 역사적 의미
 - V. 맺음말
-

【국문초록】

청주지역의 원삼국시대 철기문화 연구는 4세기 무렵의 백제문화의 확산과 관련하여 이해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청주지역의 정치 집단보다 백제의 진출 시점 또는 지배력 확대 과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고대사 및 고고학 연구가 삼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삼국의 ‘주변 지역’은 소외되었다.

최근 조사된 청주 송절동 유적은 지금까지 발굴된 다른 유적에 비해 여러 성격의 유구가 종합되어 주목된다. 철기유물 역시 고루 출토되었는데, 해당 유물은 당시 이 일대를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집단의 철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유물을 중심으로 변화양상을 검토하여 철기유물의 변화가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 (재)호서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한반도 철기문화의 도입과 확산은 중국과 연관된다. 특히 원삼국시대 중서부지역의 철기문화는 秦·漢시대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기의 분류는 漢代의 분류안에 따라 진행하였고, 검토대상 철기는 형식적 속성의 변화에 시간의 흐름이 가장 잘 나타나는 기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주 송절동 유적의 철기는 생산공구류의 정·부, 무기류의 도·촉·모, 마구류(재갈)·양단환부봉으로 구분하였으며, 개별 편년의 검토를 통하여 변화상을 도출하였다.

철기의 변화양상은 크게 3단계로 설정하였다. I단계 도입기, II단계 정착기, III단계 발전기이다.

I단계 도입기는 철기유물이 출토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A형식의 정(판상철부형)·부(공부단면 장방형·말각방형·타원형/장방형)·촉(무경만입식)·모(관부돌출/직기형)가 주로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공반토기 유물의 조합은 유개대부호·원저단경호·원저발형토기이다. 이와 같은 유물의 조합은 오산 켄동유적·아산 진터유적 등의 중서부 해안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유적은 대체로 2세기 중반부터 3세기 초반으로 편년된다.

청주 송절동 유적의 축조집단은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던 지역집단에서 기원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낙랑의 유이민이 서해안로를 통해 유입되면서 철기문화가 보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청주지역의 지역집단은 중서부 해안지역으로부터 철기문화를 수용하면서 한층 성장했을 것이다. I단계에서 보이는 철정과 무기류의 출토양상으로 보아 청주 송절동 일대를 기반으로한 정치집단은 철기문화를 수용하여 이전보다 체계적인 정치집단으로 변모하면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II단계 정착기는 정은 출토되지 않으며 B형식의 부가 출토된다. A형식(무환두/무관)의 도가 새로이 등장하며 B형식(관부촉약/직기형)의 모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촉은 A형식(무경만입식)의 전통이 유지되는 가운데 B형식(무경공부식)과 C형식의 1단경식 촉이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양단환부봉이 새로이 등장한다. 시기적으로는 3세기 중반

부터 3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양단환부봉이 출토되는 중심시기는 3세기 중반부터 최대하한은 4세기 초반으로 편년된다. 양단환부봉은 청주·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도 지역에서만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단환부봉과 함께 출토되는 토기는 복수의 원저단경호와 평저발형토기가 주로 부장되는데 대체로 유사한 공반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단환부봉의 존재는 청주·천안 지역 즉 미호천 중류지역과 병천천 유역의 정치집단이 이전 시기부터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문화를 공유하였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Ⅲ단계 발전기는 B형식의 정(타래형)·C형식(공부 단면 형태 원형/평면 형태 플라스크형)의 부가 중심을 이룬다. 무기류는 B형식(편관·양관/무환두식·환두식)의 도·C형식(2단경식)의 촉·C형식(관부 축약형/공부 연미형)의 모가 중심을 이루며 마구류가 출토된다. Ⅲ단계는 4세기 초반부터 4세기 중반이후로 편년된다.

타래형 철정은 철기의 생산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유물로 다수의 생산시설과 함께 출토되어 철기의 생산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청주 송절동 유적 축조집단은 이 시기에 기승문화가 도입되면서 직접적인 철기의 생산을 통해 병충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주변 유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4세기까지는 지역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독립된 정치집단으로 성장을 지속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주 송절동 유적의 축조집단은 2세기 중반부터 4세기까지 이 일대의 유력한 정치집단으로 자리하였고,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정세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였다. 이후 백제의 문화가 전파되어 신봉동고분군을 축조할 당시에도 여전히 백제를 구성하는 지역 정치집단으로서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주제어 : 원삼국시대, 2~4세기, 철기문화, 무기류, 생산공구류,
마구류, 양단환부봉, 청주 송절동 유적, 마한, 백제

I. 머리말

청주 송절동 유적¹⁾은 미호천 남쪽의 충적대지와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한다. 유적이 위치한 청주지역은 미호천을 따라 형성된 구릉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점토대토기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철기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는 역사시대를 전후한 시기에 사회집단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른바 원삼국시대에는 철기문화가 도입·확산되면서 사회집단의 발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변에서 확인되는 청주 송절동 고분군·청주 봉명동 유적 등의 대규모 원삼국시대 유적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철기문화의 도입과 확산은 고대국가로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원삼국시대의 철기문화는 고대국가로의 이행과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문화로 이해된다.

청주지역에 최초로 진출한 고대국가는 백제였다. 문헌기록을 통한 백제의 청주지역 진출은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기록되어 있다. 多婁王 36년 겨울 10월에 왕이 영토를 개척해 娘子谷城에 이르렀다고 한 것이다.²⁾ 낭자곡성은 백제의 娘臂城³⁾ 또는 上黨縣 지역으로,⁴⁾ 지금의

1) 청주 송절동 유적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종래 청주 송절동 유적은 1990년대에 발굴조사된 청주 송절동 고분군(충북대학교박물관 1994; 백제문화개발연구원·충북대학교박물관 1995)을 지칭했다.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에 조사된 유적은 정식 보고서 명칭에 따라 ‘청주 송절동 고분군’으로 구분해 명명했다.

2)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多婁王 36年 “冬十月 王拓地 至娘子谷城 仍遣使新羅請會 不從”

3) 『三國史記』 卷37. 雜志6 地理4 百濟 熊川州. “西原<一云娘臂城 一云娘子谷>”

4) 『高麗史』 卷56, 志10 地理1 楊廣道. “清州牧本百濟上黨縣 新羅神文王五年初置西原小京 景德王 陞西原京 太祖二十三年 改爲清州”;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忠清道 清州牧. “建置沿革. 本百濟上黨縣<一云娘臂城 一云娘子谷> 新羅神文王五年 初置西原小京 景德王陞西原京 高麗太祖二十三年

청주지역에 소재했다고 알려져 있다.⁵⁾ 낭자곡성의 위치 비정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百濟本紀 기록상 백제의 청주지역 진출 시기에 대한 이해는 상이하게 나타난다(김영관 2008). 그러나 문헌사적 관점에서는 대체로 후대의 사실이 소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노중국 1988a; 양기석 2005). 고고학적으로 보아도 청주지역에서 조사된 백제 유적의 상한은 4세기 이후로 파악되고 있어(차용걸 2005, 2007) 사료의 기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대국가 백제가 특정 시점에 청주지역에 진출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가 진출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가 제시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三國志』東夷傳에서는 3세기 중반까지 三韓 小國이 한반도 중·남부에 폭넓게 분포하였다고 전한다. 특히 청주지역에는 馬韓의 한 小國이 자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정치집단의 근원은 다수의 청동기시대의 주거유적, 점토대토기·외반구연호·흑도장경호·두형토기·세형동검으로 대표되는 초기철기시대의 유적을 토대로 볼 때(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정치집단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청주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집단의 존재는 다수의 고고학적 발굴성과에 따른 자료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청주지역의 정치집단보다 백제의 진출 시점 또는 지배력 확대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한국고대사 및 고고학 연구가 삼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연구는 소략한 형편이었다. 이제 ‘주변지역’의 관점에서 한국 고대의 역사와 문화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호천 유적의 분묘집단을 분석해 ‘國’의 구조와 변화를 추적한 연구(박중균 2010)가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는 토광묘의

改今名”

5) 낭자곡성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청주지역으로 비정되기도 하지만 충주일대로 비정되기도 한다(김윤우, 1987).

구조가 집단 내의 위계를 나타낸다고 보고, 그와 출토유물의 상관관계를 통해 미호천 유역 정치집단의 실체에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봉명동 분묘군의 조영집단을 小國의 중심 세력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4세기 이전 청주지역의 역사를 究明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연구의 대상으로 다룬 유적은 대부분 단일 성격의 유적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발굴조사에 따라 보완의 여지가 있었다.

최근 조사된 청주 송절동 유적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된다. 청주 송절동 유적은 수계상 미호천 유역권에 위치한다. 미호천은 1차 하천인 금강으로 연결되는 큰 줄기로 한반도 중부내륙지역을 북쪽(음성군)에서 증평군·진천군·청주시를 거쳐 남쪽(세종시)으로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특히 유적의 주변으로는 조천·병천천·무심천 등이 미호천에 합류한다. 각 지류의 주변으로는 충적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나지막한 구릉이 분포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자연·지리적 조건은 小國 성장의 바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는 주거지를 비롯한 생활유구와 분묘유구가 고루 조사되었다. 생산 유구와 그 이외의 다른 유구 역시 조사되었다. 송절동 유적은 현재까지 미호천 유역에서 발굴조사된 여러 성격의 유적이 종합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철기유물 역시 각 유구에서 고루 출토되었다. 기왕의 편년에서 중요한 문화지표를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이른바 송절동단계-봉명동단계-신봉동단계로 이어지는 원삼국시대 청주지역의 발전단계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송절동단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철기문화는 고대 국가의 성립·발전과 관련된다. 철기문화의 도입과 확산은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더불어 정치권력의 강화를 말해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송절동 유적의 철기유물은 당시 이 일대를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집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철기문화의 이해와 관련된 토대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의 철기유물 연구이다(이남규, 1998, 1999, 2005; 성경용, 2000).

이들 연구를 통해 한반도 중서부 철기유물의 변천 양상은 대략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4세기 무렵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발굴조사된 유적이 많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 파악된 철기유물의 종류와 수량이 증대되면서 형식분류·편년은 지속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김일규, 2007; 정인성, 2009; 함재욱, 2010; 정락현, 2015; 진수현, 2015; 최영민, 2010; 이상길, 2013; 성수일, 2016). 이 논문도 그러한 재검토 과정의 하나로서, 선행 연구를 참고해 유물의 형식을 분류하고 편년하되, 나름의 소견을 추가해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다만 철기는 토기에 비해서 형식적 변화상이 느리기 때문에 세분화된 형식설정이 어렵다. 이에 논문에서는 편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변화상이 세분되는 공반 토기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토기의 변화는 대체로 2세기 초반의 주머니호·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단계부터 2세기 중반의 유개대부호·원저발형토기, 3세기~4세기대의 원저단경호가 중심이 되는 단계, 5세기 이후의 직구호·광구호 등의 한성백제기의 요소가 침투된 단계로 대별된다(한지선, 2003; 성경용, 2006; 조상기, 2014; 차승연, 2017; 충북대학교박물관 외, 2018).

우선 철기유물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동일한 용도의 유물 중 형식학적 특징을 가진 유물을 선별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시기구분을 통해 철기유물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원삼국시대 청주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마한 小國의 동향을 염두에 두고 철기유물 변화가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유적의 현황과 검토대상 유물 선정

본 장에서는 먼저 청주 송절동 유적의 조사현황을 정리하고 철기가 출토된 유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철기유물의 현황을

토대로 검토대상 유물을 선정하고자 한다.

청주 송절동 유적은 미호천 남쪽의 충적지와 낮은 구릉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지역은 인접한 위치에 청주 송절동고분군·청주 봉명동 유적의 토광묘가 조사되면서 고대 청주지역의 중심지로 주목받았는데 전체 지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물산포지의 면적은 696,770m²이다. 이 중 시굴조사를 통하여 유적이 확인되는 범위를 확정하였고, 그 결과 155,193m²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시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사업지역의 동쪽지역에서 유적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무심천 제방의 서쪽 경작지로 155,730m²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진행한 후 발굴조사 범위를 확정하여 125,003m²에 대해서도 함께 발굴조사를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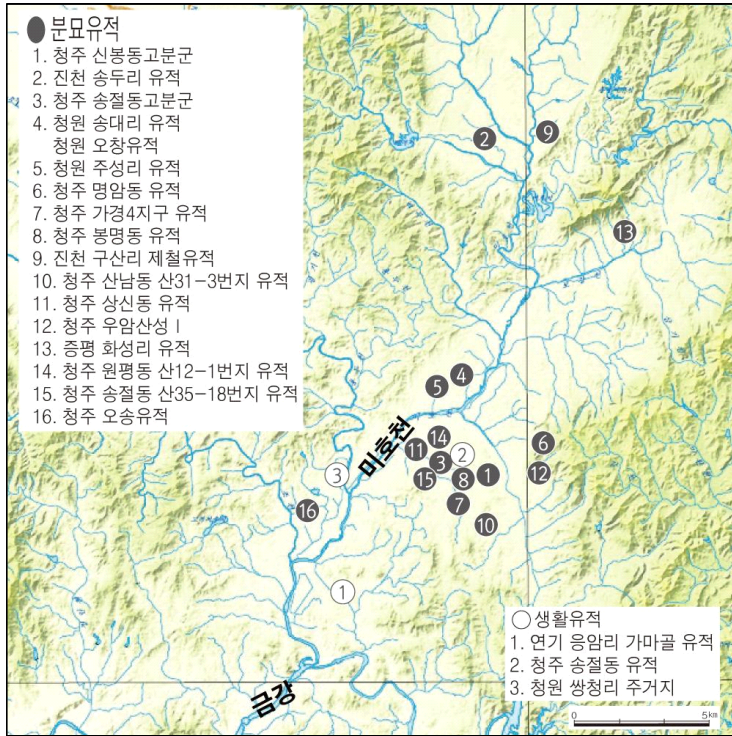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청주 송절동 일대는 무심천이 미호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지형분석결과 산지 및 구릉·자연제방·단구·단·유사선상지·미고지·구하도·하중도 등 다양한 종류의 고지형이 관찰되었다. 전체적인 지형은 산지 및 구릉에서부터 흘러나온 토석류 및 미호천, 무심천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 일대의 지형이다. 특히 발굴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서쪽으로 갈수록 구릉이, 서쪽으로는 하천의 영향으로 형성된 자연제방이 확인된다. 구릉의 꼭대기 주변으로 구하도가 지나며, 하천변으로 유사선상지와 배후습지가 확인된다. 구릉의 주변으로 구성된 산록완사면과 배후습지 주변의 구하도는 경작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형조건은 선사시대 이래 복합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역사시대 이래는 미호천 유역의 거점지형으로서 물류기지 혹은 중심지적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충북대학교박물관 외 2018, I 책, 101-102쪽.).

송절동·화계동·외북동의 육상 교통망은 옛길이 직접적으로 이 지역을 통과 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수계 교통망은 앞서 고지형 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호천 유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호천변의 정북동토성을 비롯하여 후대의

것이기는 하지만 청주 정봉동의 도로유적(중원문화재연구원, 2015)등과 오근진·동진 등의 나루터는 금강 본류로 합류되는 수계교통망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호천 본류는 진천·증평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는 음성 등의 한강유역으로도 연결된다. 또 병천천·조천 등은 미호천에 합류하면서 천안 등의 중서부지역과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무심천이 속리산으로 연결되면서 영남지역으로의 관문인 소백산맥과 접하고 있다. 미호천 중심의 수계 연결은 특히 고대의 교통망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표 1> 원삼국시대 철기유물 출토 유적

	유적명	보고서
분묘 유적	청원 송대리 유적	충북대학교박물관 1983
	청주 신봉동 고분군	충북대학교박물관 1990, 1995, 1996, 2005b; 한국전사문화연구원 2013
	진천 송두리유적	차용걸·조상기 1991
	청주 송절동 고분군	충북대학교박물관 1994
	청원 오창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2000
	청원 주성리 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a
	청주 명암동 유적	국립청주박물관 2000
	청주 가경4지구 유적	충북대학교박물관 2002
	청주 봉명동 유적	충북대학교박물관 2005a
	진천 구산리 제철유적	충북문화재연구원 2010
	청주 산남동 산31-3번지 유적	충북문화재연구원 2014
	청주 상신동 유적	한국전사문화연구원 2014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6b
	청주 우암산성 I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4
	청주 원평동 산12-1번지 유적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6a
	증평 화성리 유적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6c
	청주 송절동 산35-18번지 유적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7
	청주 오송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생활 유적	청원 쌍청리 주거지	국립청주박물관 1993
	청주 송절동 농업창고부지 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연기군 응암리 가마골 유적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a



<그림 1> 청주지역 원삼국시대 철기 출토유적 표시도

이처럼 청주 송절동 일대는 환경적 요인을 토대로 송절동고분군·봉명동고분군 등 다수의 원삼국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는 원삼국시대의 정치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1. 유적의 조사현황과 철기 출토유구의 검토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는 7개 지구로 구분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총 1993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시대별로는 구석기 유적 3개소(토탄층 포함-0.2%), 신석기시대 유구 2기(0.1%), 청동기시대 유구 122기(6.1%), 원삼국시대 유구는 1217기(61.1%), 통일신라·고려 이후의

유구 646기(32.4%)가 조사되었다.

원삼국시대 유구는 모두 1217기가 조사되었는데 유구의 성격별로는 생산유구가 30기(2.5%), 생활유구가 556기(45.7%), 분묘유구가 369기(30.3%), 기타유구가 262기(21.5%)가 조사되었다. 이들 유구에서 출토된 철기유물은 모두 451점이다. 철기가 출토된 각 지구별 원삼국시대의 유구 조사현황은 다음과 같다.⁶⁾

1) I 지구⁷⁾

I 지구의 지형은 구릉과 구릉사면 말단부의 충적지를 포함한다. 발굴조사는 7개 지점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이들 중 원삼국시대의 유구가 조사된 지점은 4지점·5지점·6지점·7지점이다. 충적지에 위치한 4지점과 5지점에서는 원삼국시대의 제철로·폐기장을 비롯한 생산유구와 주거지와 주혈군을 비롯한 생활유구가 조사되었다. 6지점과 7지점에서는 원삼국시대의 토광묘가 주로 조사되었다.

I 지구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유구는 총174기이다. 생산유구는 6기(3.4%), 생활유구는 77기(44.2%), 분묘유구는 37기(21.2%), 기타유구는 54기(31.0%)가 조사되었다. 철기가 출토된 유구는 총47기로 전체 유구의 27%에 해당한다. 유구의 성격별 철기의 출토빈도는 생산유구 1기(16.0%), 생활유구 22기(28.5%), 분묘유구 24기(64.8%)로 철기의 출토빈도가 가장 높은 유구는 분묘유구이다.

I 지구에서 철기유물은 총65점이 출토되었다. 유형별로는 생산공구류가 37점(56.9%)으로 가장 많이 출토되었고, 무기류 25점(38.4%)·마구류 1점(1.5%)·기타류 2점(3.0%)순으로 출토되었다.

6) 청주 송절동 유적은 총7개의 지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 중 IV지구와 VI지구에서는 원삼국시대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원삼국시대를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였으므로 IV지구와 VI지구는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각 지구 내의 지점별 조사현황에서도 원삼국시대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점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외된 지점은 각 지구별 검토에서 따로 언급하였다.

7)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8, 『청주 송절동 유적』 II.

<표 2> I 지구 철기 출토 원삼국시대 유구 조사현황

유구 지점	생산		생활		분묘		기타	
	제철로	폐기장	주거지	주혈	토광묘	옹관묘	수혈 유구	구상 유구
I -4	-	-	22	-	-	-	-	-
I -6	-	-	-	-	22	-	-	-
I -7	1	-	-	-	2	-	-	-
계	1		22		24		-	
합계	47							

<표 3> I 지구 철기 출토현황

유물 지점	생산공구류			무기류	마구류	기타류
	철소재	공구	농구			
I-4	6	6	3	1	1	-
I-6	2	12	8	23	-	2
I-7	-	-	1	1	-	-
소계	8	18	11	25	1	2
계	37					
합계	65					

생산·생활유구가 중심을 이루는 I-4지점의 생산공구류 출토양상을 보면 농구류 보다는 철소재와 공구류의 출토비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목재가공과 철기의 생산과 관련된 기구가 농구류보다 많이 출토된 점은 생산·생활유구를 축조한 집단이 농경보다는 철기의 생산 활동에 더 비중을 둔 집단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분묘유구 중심의 I-6지점 I-7지점에서는 생산공구류 중에서도 공구의 부장과 무기류의 부장이 주목된다. 특히 무기류는 생산·생활유구에서의 출토량이 매우 소량인데 비하여 분묘에서는 다수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무기류는 시기에 상관없이 제의적 용도가 반영되어 부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I 지구는 생산·생활유구와 분묘유구가 고루 조사되었다. 생활·생산유구는 구릉사면 말단부가 일부 포함된 충적지에서 확인이 되며, 분묘유구는 구릉사면을 따라 축조된 양상을 보인다. 철기는 생산·생활유구에서는 생산공구류를 중심으로 출토되었고, 분묘유구에서는 생산공구류와 무기류가 비슷한 비율로 출토되었다. 생산·생활유구

에서는 한정적으로 출토되는 무기류가 분묘유구에서는 그 출토빈도가 높아지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전체 출토빈도를 보면 분묘유구에서 가장 높은 출토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철기 자체가 제의적 기능을 겸하였음을 나타낸다.

2) II지구⁸⁾

II지구의 지형은 해발 44~58m 내외의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굴조사는 6개 지점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II-3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원삼국시대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원삼국시대의 유구는 토광묘와 옹관묘만 확인되어 분묘유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II지구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유구는 총231기이다. 모두 분묘유구만 확인되었다. 이들 중 철기가 출토된 유구는 총79기로 전체의 34.1%에 해당한다.

II지구에서 철기유물은 총243점이 출토되었다. 유형별로는 생산공구류 60점(24.6%), 무기류 159점(65.4%)·마구류 6점(2.4%)·기타류 18점(7.4%)이 출토되었다.

철기의 출토양상을 보면 무기류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공구류에서는 농구류는 출토되지 않았고, 공구류가 중심으로 출토되는 가운데 소량이라는 하지만 철소재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II지구에서는 분묘유구만 확인·조사되었다. 분묘유구에 철기가 부장되는 것은 철기 자체가 가지는 제의적 기능의 표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철기의 용도별로는 무기류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생산공구류는 공구가 중심으로 출토되는 가운데 소량의 특수목적 철기(철소재)가 몇몇의 유구에서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분묘의 위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재)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 『청주 송절동 유적-송절동·외북동·화계동 유적-』 III.

<표 4> II지구 철기 출토 원삼국시대 유구 조사현황

유구 지점	생산		생활		분묘		기타	
	제철로	폐기장	주거지	주혈	토광묘	옹관묘	수혈 유구	구상 유구
Ⅱ-1	-	-	-	-	42	-	-	-
Ⅱ-2	-	-	-	-	2	-	-	-
Ⅱ-4	-	-	-	-	28	-	-	-
Ⅱ-5	-	-	-	-	4	-	-	-
Ⅱ-6	-	-	-	-	3	-	-	-
계	-		-		79		-	
합계	0							

<표 5> II지구 철기 출토현황

유물 지점	생산공구류			무기류	마구류	기타류
	철소재	공구	농구			
Ⅱ-1	6	30	-	133	-	7
Ⅱ-2	-	3	-	-	-	-
Ⅱ-4	-	14	-	24	-	9
Ⅱ-5	-	3	-	2	6	2
Ⅱ-6	-	4	-	-	-	-
소계	6	54	-	159	6	18
계	60					
합계	243					

3) III지구⁹⁾

III지구의 지형은 해발 54~64m 내외의 구릉과 일부 곡간부를 포함한다. 발굴조사는 5개 지점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원삼국시대의 유구는 III-5지점에서만 조사되었다. III-5지점에서는 구릉 정상부와 구릉사면을 중심으로 원삼국시대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III지구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유구는 총43기이다. 모두 분묘유구만 확인되었다. 이들 중 철기가 출토된 유구는 총15기로 전체의 34.8%에 해당한다.

III지구에서 철기유물은 총34점이 출토되었다. 유형별로는 생산공구류 17점(50.0%), 무기류 10점(29.4%)·기타류(양단환부봉) 7점(20.5%)

9)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8, 『청주 송절동 유적-화계동 유적-』 IV.

이 출토되었다.

<표 6> III지구 철기 출토 원삼국시대 유구 조사현황

유구 지점	생산		생활		분묘		기타	
	제철로	폐기장	주거지	주혈	토광묘	옹관묘	수혈 유구	구상 유구
Ⅲ-5	-	-	-	-	15	-	-	-
계	-		-		15		-	
합계	15							

<표 7> III지구 철기 출토현황

유물 지점	생산공구류			무기류	마구류	기타류
	철소재	공구	농구			
III-5	-	17	-	10	-	7
계	17			10	-	7
합계	34					

철기의 출토양상을 보면 생산공구류가 가장 높은 출토빈도를 보이고 있다. 생산공구류에서는 공구만 출토되었다. 생산공구류에 비해 무기류의 출토빈도가 낮은 점이 주목된다. III-5지점에서 조사된 상당수의 원삼국시대 토광묘는 조사 당시에 도굴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유구가 도굴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무기류가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II지구에서는 분묘유구만 조사되었다. 철기는 도굴로 인하여 상당부분 유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철기는 생산공구류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는 공구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4) V지구¹⁰⁾

V지구의 지형은 해발 58~65m 내외의 구릉에 해당한다. 발굴조사는 7개 지점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원삼국시대의 유구는 모든 지점에서 조사되었다. 조사된 원삼국시대 유구는 모두 분묘유구이다.

V지구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유구는 총38기이다. 모두 분묘유구만

10) (재)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 『청주 송절동 유적-외북동 유적-』 VI.

확인되었다. 이들 중 철기가 출토된 유구는 총10기로 전체의 26.3%에 해당한다. 철기는 총19점이 출토되었다.

유형별로는 생산공구류 3점(15.7%), 무기류 11점(57.8%)·기타류 5점(26.3%)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철기의 유형별 출토빈도를 보면 무기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공구류에서는 공구만 출토되었다.

V지구는 유구의 수도 적은 편이지만 조사 당시에 대부분의 토광묘에서 도굴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전체적인 철기의 출토빈도가 적은 것은 도굴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V지구 철기 출토 원삼국시대 유구 조사현황

유구 지점	생산		생활		분묘		기타	
	제철로	폐기장	주거지	주혈	토광묘	옹관묘	수혈 유구	구상 유구
V-1	-	-	-	-	2	-	-	-
V-2	-	-	-	-	5	-	-	-
V-3	-	-	-	-	1	-	-	-
V-6	-	-	-	-	1	-	-	-
V-7	-	-	-	-	1	-	-	-
계	-		-		10		-	
합계	10							

<표 9> V지구 철기출토현황

유물 지점	생산공구류			무기류	마구류	기타류
	철소재	공구	농구			
V-1	-	1	-	3	-	-
V-2	-	-	-	-	-	5
V-3	-	-	-	1	-	-
V-6	-	2	-	-	-	-
V-7	-	-	-	7	-	-
계	3			11	-	5
합계	19					

5) VII지구¹¹⁾

- 11)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8, 『청주 송절동 유적』Ⅷ.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8, 『청주 송절동 유적』Ⅸ.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8, 『청주 송절동 유적』Ⅹ.

VII지구의 지형은 하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은 충적지이다. 발굴 조사는 5개 지점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원삼국시대의 유구는 모든 지점에 확인되었다. 생산유구와 생활유구가 조사되었고, 분묘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청동기시대의 생활유구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VII지구와 그 주변의 충적지 일대를 기반으로 인류가 생활을 영위했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표 10> VII지구 철기 출토 원삼국시대 유구 조사현황

유구 지점	생산		생활			분묘		기타	
	제철 로	폐기 장	주거 지	주혈 군	지상 식건 물지	토광 묘	옹관 묘	수혈 유구	구상 유구
VII-1	-	-	36	-	-	-	-	-	-
VII-2	-	-	8	-	-	-	-	-	-
VII-3	-	-	13	-	-	-	-	2	-
VII-5	-	-	1	-	-	-	-	-	-
계	-		58			-		2	
합계	60								

<표 11> VII지구 철기출토현황

유물 지점	생산공구류			무기류	마구류	기타류
	철소재	공구	농구			
VII-1	4	39	5	8	2	6
VII-2	1	2	-	-	-	-
VII-3	6	11	-	1	-	-
VII-5	1	-	-	-	1	2
계	69			9	3	8
합계	89					

VII지구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유구는 총711기이다. 생산유구 24기(3.3%), 생활유구 479기(67.3%), 기타유구 208기(29.2%)가 조사되었다. 생활유구가 집중되어 확인·조사되었고, 비교적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생산유구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철기가 출토된 유구는 총 60기로 전체

(재)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8, 『청주 송절동 유적』 XI.

원삼국시대 유구의 8.1%에 해당한다. 철기는 생활유구 중에서도 주거지에서 대부분이 출토되었다.

철기는 총89점이 출토되었다. VII-4지점에서는 철기가 출토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생산공구류 69점(77.5%), 무기류 8점(8.9%), 마구류 3점(3.3%), 기타류 8점(9.0%)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철기의 유형별 출토빈도를 보면 생산공구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공구류에서는 공구류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는데, 철소재도 함께 출토되어 주목된다. 생산유구의 존재와 철소재·공구의 출토는 VII지구 유적 축조집단이 철기의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VII지구는 충적지에 위치한다. 분묘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생활유구가 집중되어 확인되었다. 생산유구도 함께 확인된다. 철기에서는 철소재와 공구의 출토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철기와 유구의 관계를 보면 VII지구의 생활유구 축조 집단은 농경 보다는 철기의 생산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철기의 분류와 검토대상 유물의 선정

원삼국시대의 유구에서 출토된 철기유물은 총 451점이다. 1217기의 유구 중 214기의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유구의 성격별로는 생산유구는 1기(0.5%), 생활유구는 80기(37.4%), 분묘유구는 131기(61.2%), 기타유구는 2기(0.9%)에서 출토되어 분묘유구에서의 출토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유물의 유형별로는 생산공구류가 187점(41.5%), 무기류가 214점(47.5%), 마구류가 10점(2.2%), 기타류가 40점(8.9%)이 출토되어 무기류가 가장 높은 비율로 출토되었다.

생활유구에서는 94점이 출토되었다. 생산공구류가 72점(76.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타류 10점(10.6%), 무기류 9점(9.6%), 마구류 3점(3.2%) 순으로 출토되었다.

분묘유구에서는 무기류가 204점(57.5%)으로 가장 많이 출토되었고, 생산공구류 105점(29.6%), 기타류 40점(11.3%), 마구류 6점(1.5%) 순으로 출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철기는 생산·생활유구에서는 생산공구류로 분류되는 유물이 가장 높은 비율로 출토되었고, 분묘유구에서는 무기류로 분류되는 유물이 가장 높은 비율로 출토되었다. 철기유물은 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검출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구의 성격에 따라 용도별 출토비율이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된다.

1) 철기유물의 분류

한반도의 철기문화는 戰國時代 燕나라의 영향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漢代를 통하여 확산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철기유물의 분류는 진·한시대의 형태적 분류를 참고(白云翔, 2005)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진·한시대의 철기의 분류는 크게 生産工具·兵器武備·車馬机具·日用器具·錢幣与度量衡器·雜用器具로 분류된다. 유적에서 확인된 철기는 생산공구류·병기무비류(무기류)·차마궤구류(마구류)·기타류(양단환부봉)이다.

먼저 생산공구류는 철기 자체의 생산, 또는 철기를 통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철기가 포함되며 용도에 따라 목작가공기구·토작농경기구·광야기구가 있다. 논문에서는 목작가공기구는 공구로 토작농경기구는 농구로 광야기구는 철소재로 명명하였다. 또한 유형별 배열순서는 철기의 유통과정에서 생산을 가장 최초의 단계로 보고 철기 자체의 생산과 관련된 철소재, 철생산을 위한 製鐵爐의 운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재료인 목재의 가공과 관련된 공구, 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구 순으로 설정하였다.

진·한시대의 철소재는 주범(鑄范)을 중심으로 출토되었다. 공구에는 斧(도끼)·鉞(자귀)·鑿(송곳)·扁鏟(대패)·鋸(톱)·錘(망치)·砧(침)·鎌(낫)·鋤頭(드릴)·冲牙(투공말뚝)·截具(절단도구)·整(조각도구)·鏟具(삽)·鏗(줄칼)·刮刀(면도칼)·削刀(조각칼)·削刀(깎는칼)·砍刀(날이 넓은 칼)·小刀·工具刀·环首錐(고리달린송곳)이 있다. 농구에는 鐮(괭이)·鍤(가래)·鏟(삽-U자형구)·鋤(자귀·호미)·犁鏵(쟁기)·鋤(보습)·鋒刃鎌(낫)·銑刀(짧은낫)·抹泥板(흙손)·夯錘(망치)·

魚叉(작살)이 있다. 이들 중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철소재는 鋌(덩이쇠)·鑿(투공도구), 공구는 斧·鎌·刀子¹²⁾, 농구는 U자형구·괭이·두발괭이·자귀가 출토되었다.

진·한시대의 병기무비류는 劍·戟·矛·刀·鏃·甲·胄가 있다. 유적에서는 방호장비인 갑·주과 극은 출토되지 않았다. 논문에서는 무비류는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기무비류를 무기류로 표기하고자 한다. 무기류는 검·모·도·촉이 출토되었다.

진·한시대의 차마궤구류는 수레의 부품류·마구류와 말장식·고전 기계부품이 있다. 이들 중 유적에서는 마구류만 출토되었기 때문에 차마궤구류를 마구류로 표기하고자 한다. 한편 유적에서 출토된 마구류는 출토량은 적지만 기승문화의 도입을 나타내주는 표지적인 유물로 인식(성정용 외, 2009; 정한나, 2018; 황다운, 2018)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였다.

기타류는 이상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유물로 분류하였다.

2) 검토대상 유물

기본적으로 철기유물은 형식변화상이 더디고 토기와 다르게 세분화된 형식설정이 불리한 유물이다(성수일, 2016, 55쪽). 따라서 앞서 분류한 철기유물 중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식변화가 뚜렷한 유물을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1) 生産工具類

생산공구류는 용도별로 철소재·공구·농구로 구분된다. 검토유물의 선정은 수량과약에 용이하고 변화양상이 뚜렷한 기종을 선별하였다. 농구는 출토량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유물이 I 지구에 한정되어 출토되었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2) 진·한시대의 공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도형식의 칼이 분류되었다. 논문에서는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소도형식의 칼을 통칭하여 ‘刀子’로 명명하였다.

철소재는 정과 착이 출토되었는데, 비교적 형태의 변화가 뚜렷하고 시간성 파악에 용이한 정을 검토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鉞은 제철지에서 제련과 정련을 통해 생산된 철소재를 철기로 가공하기 편리하면서 유통에도 용이한 형태로 가공된 소재를 말한다(성정용, 2018, 241-245쪽.). 鉞은 형태에 따라 판상철부형과 타래형으로 구분된다.

공구는 斧・鎌・刀子가 출토되었다. 검토의 대상으로는 斧를 선정하였다. 斧는 나무를 찍거나 패는 과정을 통하여 목재를 1차적으로 가공하는 용도의 공구이다. 제작 기법에 따라 주조철부와 단조철부로 구분되기도 한다. 유적에서는 지표상에서 수습된 것을 제외하면 유구 내부에서는 모두 단조철부만 확인되었다.

(2) 武器類

유적에서 출토된 무기류는 劍・刀・矛・鏃이 있다.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는 전체 451점의 유물 중 215점의 무기류가 출토되었다. 무기류는 생산・생활유구보다는 분묘유구에서의 출토빈도가 높다. 전체 유적에서 단 1점만 출토된 검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刀・矛・鏃을 검토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刀는 금속유물 중 철을 이용하여 제작한 鐵製刀를 뜻하며 ‘한 쪽 측면에 날을 세워 물건을 베고 쓰는데 사용한 연장’이라고 하여 劍과 구분되며, 한글 용어로는 ‘칼’이라고 명명되고 있다. 도는 크게 柄部和 刀身部로 구성된 木柄刀, 병부의 윗부분에 環頭・方頭・圓頭・圭頭 등의 각종 장식인 있는 裝飾刀로 구분된다(김신혜, 2009, 1-2쪽.).

矛는 일종의 근거리 무기이자 장병기로서 刀, 鏃과 함께 고대 무기 체계의 핵심이다(성정용, 2000, 110쪽.). 문헌 기록상에서의 모는 『三國志』¹³⁾에서 보이듯이 주로 보병이 사용한 무기로 추정되며, 모의 기

13) 『三國志』卷30 魏志30 東夷 濊. “作矛長三丈, 或數人共持之, 能步戰”; 夫餘. “以弓矢刀矛爲兵, 家家自有鎧仗”; 東沃沮. “人性質直彊勇, 少牛馬, 便持矛步戰”; 弁辰. “便步戰, 兵仗與馬韓同”

능 또한 도·촉과의 비교하였을 때 살상력이나 전투력에서 뒤쳐지지 않는 무기로 판단된다(진수현, 2015, 1-2쪽.).

궁시의 구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鏃은 ‘살촉·화살 끝에 박은 돌이나 쇠붙이로 만든 촉’이라 정의하고 있다. 촉은 촉신부만 있는 무경촉, 촉신부와 경부가 있는 유경촉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 촉신부의 형태, 경부의 단수, 역자의 유무 등에 따라 다시 구분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조규희, 2013, 1-2쪽.).

(3) 마구류(馬具類)

마구는 말을 제어하기 위하여 말에 장치한 일정한 기능을 가진 도구 또는 장식을 통칭한다. 유적에서는 재갈의 일부인 함만 출토되었다.

재갈은 마구의 한 갈래로 말의 입에 재갈쇠를 물리고 뒤에 끝을 연결하여 말을 제어하는데 사용된 도구이다(성정용 외, 2009, 108쪽.). 양쪽에 고리가 있는 철제품끼리 서로 걸구되어 있는 형태로 논문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는 재갈은 완형으로 출토되지 않고 말의 입에 물리는 銜만 출토되었고, 잔존상태도 양호하지 않은 편이다.

(4) 양단환부봉

兩端環部棒은 철봉의 양쪽 끝을 꼬아서 고리모양을 조성한 것으로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형태는 재갈의 꼬빼이음쇠와 유사하다. 양단환부봉의 구조는 2~3개의 철사를 꼬아서 철봉형을 만든 후 양 끝단에 고리를 조성하거나 1개의 철봉 양 끝단을 꼬아서 고리모양을 조성하는 등 제작 기법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휘어짐이 없이 곧은 형태와 완만하게 휘어진 형태로 제작된 경우도 있다.

양단환부봉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원삼국시대의 토광묘에서 다른 유물과 공반하여 출토되는 하나의 유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들어서 짐을 나르거나 수레를 끄는 말이나 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 매우 유용한 봉면계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이주현, 2015), 재갈의 銜이나 引手로 추정하여 보고된 사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가 있기는 하지만 양단환부봉의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도가 정의되지 않는 상태이다.

용어에 있어서도 선행연구와 보고서에서 미상철기, 불명철기, 이형철기 등으로 불리어 졌다. 비교적 최근에는 출토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부여하여 양단환부봉, 양단환두봉, 양단환봉, 봉상철기, 양단환봉상철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고고학전문용어집에는 양단환부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양단환부봉으로 명칭을 정하였다.

이와 같이 유물의 분류와 검토대상 철기를 선정하였다. 철기의 검토는 변화상이 뚜렷하거나 편년이 뚜렷한 유물로 한정하였다. 철기는 토기에 비해서 형식적 변화상이 느리기 때문에 세분화된 형식설정이 불리한 편이다. 따라서 개별 검토에 있어서 편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변화상이 세분되는 공반 토기를 함께 살펴(한지선, 2003; 성정용, 2006; 조상기, 2014; 차승연, 2017)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알아보고자한다. 공반 토기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기종이 출토된 유구의 토기를 통하여 편년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12> 청주 송절동 유적 출토 철기의 분류와 검토대상 철기

진한시대분류	청주 송절동 유적 출토 철기의 분류		검토대상 철기
생산공구류	생산공구류	철소재	錠
		공구	斧
		농구	-
병기무비류	무기류		刀, 矛, 鏃
차마궤구류	마구류		銜
-	기타류(양단환부봉)		兩端環部棒

Ⅲ. 철기의 유형별 형식분류와 편년

철기의 형식분류는 각 유형별 시간에 따른 변화상이 가장 잘 나타

나는 속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철기는 그 특성상 토기에 비해 형식의 변화가 더디기 때문에 비교적 변화상이 뚜렷한 토기의 편년을 참고하여 주변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편년을 검토하고자 한다. 청주와 그 주변지역의 원삼국시대 토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초기철기시대 이후에 본격적인 원삼국시대가 시작된 이후 미호천 일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위치하는 토기는 주머니호·조합식우각형 파수부호 등의 와질토기류이다. 와질토기류는 주로 영남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주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청주 송절동 유적 V-2지점·진천 송두리에서 출토된 예가 있지만 매우 한정적으로 출토되었다. 영남지역 와질토기의 전개과정은 기원전 1세기부터 2세기 중엽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원태, 2013). 진천 송두리유적에서 출토된 와질토기와 청주 송절동 유적 V-2-2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주머니호와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양뉴부호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영남지역과의 편년관계상 1세기 중엽까지도 상한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대체로 주변 지역과의 관계·다른 유구와의 중첩관계로 미루어 2세기 초반부터 3세기 초반을 중심시기로 추정하고 있다(충북대학교박물관 외, 2018, 13책 73쪽.).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의 편년은 유적 전체의 개괄적인 편년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므로 후행하는 단계의 토기와 와질토기 단계를 하나의 분기로 설정하여 와질토기단계의 하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중서부지역 출토 와질토기에 대한 정확한 편년관계는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남지역과의 편년관계상 시기의 하한을 2세기 중반 무렵으로 보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유개대부호와 원저발형토기·원저단경호가 출토되는 단계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적에서 출토된다.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출토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적은 오산 궤동유적·아산 용두리 유적·아산 명암리 박지프레 유적·연기 용호리 유적·오송 유적 등이 있다. 이들 유적의 축조시기는 대체로 2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편년되고 있다.

다음은 원저단경호가 중심이 되는 단계이다. 원저단경호는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 유적에서 흔히 출토되는 기종이다. 복수의 원저단경호와 발형토기가 함께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저단경호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동체의 변화에서 가장 뚜렷한 흐름이 관측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김성남, 2001; 성경용, 2006; 조상기, 2014; 차승연, 2017). 원저단경호의 동체형태 변화는 동최대경의 위치가 점차 동체 상위로 올라가며 후행할수록 건부가 발달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3세기全般에 걸쳐 출토되는 원저단경호는 일반적으로 평저발형토기를 공반하며 타날문이 부가된 평저발형토기가 출토되기도 한다. 복수의 원저단경호와 1점 내외의 발형토기가 공반되는 양상은 3세기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토기 부장양상이다.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는 3세기全般에 걸친 이 시기를 2개의 분기로 설정하여 편년을 시도하였다(충북대학교박물관 외 2018, 13책 73쪽.).

4세기대는 발형토기에 타날이 가미되며 원저단경호의 장동화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된다. 원저단경호는 크기가 대형과 소형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3세기대에 복수의 단경호가 매장되던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파배·유공호·유견호 등의 소형화된 토기가 함께 출토되는 등 토기의 기종이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토기의 변화는 주변의 봉명동 유적과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이른바 ‘봉명동 단계’로 인식된다. 봉명동 단계는 이 지역이 완전히 백제의 영역화가 진행된 신봉동 단계 직전의 과도기적 단계로 인식되기 때문에 원삼국시대의 마지막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신봉동 단계는 완전히 백제의 영역화가 진행된 시기로 여겨진다. 이 시기에는 광구장경호·광구단경호·광구대호·삼죽기 등의 한성백제기 토기와 더불어 유견호·파배로 대표되는 지역적 전통이 유지된 토기를 비롯하여 많은 기종의 토기가 출토된다(한지선, 2013). 특히 파배는 봉명동 단계에서 시작되어 영남지역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된다(차용걸, 2005). 파배에서의 예는 이 지역이 백제영역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지역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삼국시대의

전통이 삼국시기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은 지역집단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청주 송절동 유적과 주변지역의 원삼국시대 토기 변화 양상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철기는 변화상이 더디고 형식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공반 토기를 함께 검토하여 편년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1. 生産工具類

1) 鋌

정은 제련과 정련을 통해 생산된 철소재를 소비지에서 철기로 가공 하기에 편리하면서 유통에도 용이한 형태로 가공된 덩이쇠를 통칭한다.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정은 모두 17점으로 분묘에서 6점이 출토되었고, 나머지는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정은 철기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철소재로서 유통에 편리한 단순한 형태임과 동시에 다른 철기로 전환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일찍부터 철소재로 주목받아 왔다(안해성, 2009; 성정용·성수일, 2012).

(1) 형식분류

<표 13> 철정의 형식분류(1/6)

판상철부형(A)	타래형(B)
	

정의 형식분류는 성정용(2018, 245쪽)의 형식분류안을 참고하여 진

행하였다. 먼저 판상철부형(A형식)은 단면형태가 세장방형이고 한쪽에 인부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단면 형태가 방형보다는 세장방형에 가까운 점을 주요 형식상 특징으로 간주하여 판상철부형(A)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A형식은 한쪽 면에 인부가 조성되어 있고 인부가 넓어지면서 조성된 형태와 신부의 방향을 따라 인부가 조성된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인부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주 문성리 큰길골 유적(중원문화재연구원, 2014)의 1-4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철정과 더불어 도구(판상철부)로서 실제 사용을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A형식은 모두 분묘에서만 출토되어 제의적인 기능도 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묘군에서도 단 2기의 토광묘에서만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집단 내 소수의 특정 계층에 한하여 소유 및 부장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타래형(B형식)은 납작한 판형의 철판의 양쪽(또는 한쪽)으로 양쪽으로 벌어지는 형태의 도끼모양을 조성하였다. 평면 형태는 A형식과 일부 유사점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단면형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A형식의 단면형태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인데 비해 B형식은 두께가 0.5cm 내외로 매우 얇다. B형식은 모두 주거지에서만 출토되었다.

(2) 편년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정은 두 가지의 형식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형식이 성격이 서로 다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분묘는 부장품으로 시신과 함께 매장되지만 주거지는 실용구가 폐기와 함께 매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의 기능적인 차이도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반 유물을 통하여 편년을 진행하였다.

먼저 A형식은 II-1-43호 토광묘에서 유개대부호와 단경호와 함께 출토되었고, II-1-71호 토광묘에서는 유개대부호 · 단경호 · 원저발형토기 · 철모 2점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러한 공반 양상은 주변에서 발굴 조사된 천안 대화리 · 신평리유적 KM-059호 토광묘에서도 확인된다.

KM-059호 토광묘에서는 단경호를 비롯하여 유개대부호, 원저발형토기, 철촉, 철부 등이 철정 10점과 함께 출토되었다(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4).

A형식은 주로 영남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김해 대성동 45호분, 김해 양동리 162호·200호분, 포항 옥성리 나-108호 목관묘, 하대 44호 목관묘 등이 있다(김도현, 2004). A형식 철정의 편년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2세기 후반의 영남지역의 목곽묘 출현단계에 1단 또는 2단 관식의 철모와 함께 부장되는 표지유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김일규, 2018). 따라서 판상철부형 정의 편년은 2세기 후반을 중심시기로 하는 편년이 가능하다. 상한과 하한은 대표 공반 토기인 유개대부호·원저발형토기의 출토시기로 볼 수 있다.

B형식은 판상철부형에서 점차 가운데가 좁고 양단이 넓게 되어있는 형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철정은 출토수량이 매우 한정적인 관계로 변화상의 연속성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영남지역의 타래형 철정은 주로 도질토기와 함께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판상철부형 철정보다 후출하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성정용, 2018, 245쪽.).

B형식은 서남부지역과 중서부지역에도 출토되고 있다. 생산지의 위치나 성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포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유통상의 용이성이 이전 시기에 비해 부각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타래형 철정의 출토상태를 보면 10매가 부착되어 포개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충주 탄금대토성에서 출토된 철정을 통하여 철정 유통의 최소단위가 5매일 가능성을 감안하면(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청주 송절동 유적의 철정은 10매 단위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B형식은 장란형토기 또는 대옹 등의 유물과 함께 출토되었다. 공반된 유물의 사례로 볼 때 타래형 정의 편년은 4세기 중반을 중심시기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타래형 철정의 등장시기와 관련해서는 석장리 제철유적의 4-2호 노 근처에서 출토된 소형철판(또

는 소형철정)을 4세기 초반으로 편년되기 때문에 타래형 철정의 최초 출현 시기는 4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하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박선미, 2011, 32-34쪽.). 또한 영남지역의 5세기대 수장급 무덤에서 많은 수량의 철정이 부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5세기에 철정의 생산과 유통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타래형 철정이 대규모로 유통되는 시기는 5세기보다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남지역의 타래형 정이 대부분 무덤에 부장되는데 비해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는 주거지에서만 확인되고 있고 주변으로 노·폐기장과 같은 철생산과 관련된 유구가 함께 확인되었다.

한편 인접한 지역인 충주 문성리 큰길골 유적(중원문화재연구원, 2014)과 충주 탄금대 토성(중원문화재연구원, 2009)에서는 B형식의 철정과 비슷한 시기로 편년되는 봉상형 철정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봉상형 철정은 판상철부형의 철정과 유사하지만 인부가 조성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봉상형 철정의 편년을 보면 탄금대토성은 4세기 중후반, 문성리 큰길골유적은 5세기 이후로 편년된다. 충주지역은 한반도의 가장 대표적인 철 생산지로 칠지도의 제작지인 谷那鐵山으로 비정되기도 한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1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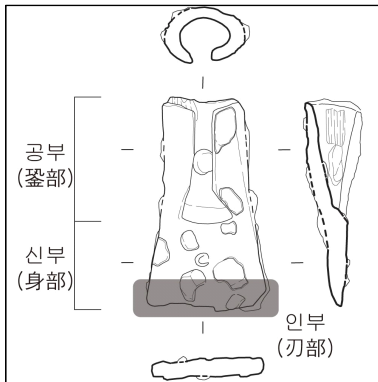
충주지역의 철정은 대체로 출토지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칠지도의 산지로 비정되고 있어 백제와의 연관성이 강조된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130쪽.). 이러한 점에서 4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정은 그 형태에 따라 최초 생산지역 또는 생산세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주 송절동 유적 VII지구의 정이 출토된 유구와 주변의 정황, 충주 지역과 구별되는 양상 등을 종합해보면 청주 송절동 유적의 축조집단은 철기의 생산·유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예측된다.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타래형 철정은 4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한 시기로 편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유적과 비교하여 시기적 편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수계를 중심으로 보

면 남한강권의 충주와 금강권의 청주의 철정은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강권은 한강상류의 단양을 통하여 영남지역의 신라로, 한강하류역의 서울지역으로 유통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청주지역은 금강상류를 통하여 영남지역으로 이어지면서 낙동강 주변의 변한·가야지역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의하면 변한은 韓과 濊·倭 뿐만 아니라 낙랑·대방군까지 철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주 송절동 유적의 철정은 특히 변한·가야 지역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 斧



<그림 2> 부의 명칭안

(Ⅲ-5-1-14호 토광묘-1/4)

대체로 제작기법상의 변화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이남규, 2002; 김상민, 2009; 최영민, 2010; 이상길, 2013 등). 현재까지 단조철부 자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는 단편적으로나마 단조철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최영민, 2010; 이상길, 2013).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는 주조품의 부는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형식분류를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는 기본적으로 목재를 벌채하거나 가공하는데 쓰는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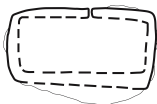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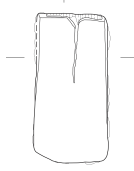
부는 48점이 출토되었다. 철부는 제작기법에 따라 주조철부와 단조철부로 구분된다. 유구에서 출토된 철부는 모두 단조품으로 대부분 분묘에서 출토되었다. 부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주조철부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강유역에서 출토되는 주조철부는 낙랑의 철기문화와 관련하여 주목되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제작기법상의 변화양상을

용구로서 사용상의 편의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의 검토에서는 실용성이 가미된 속성변화를 중심으로 형식분류 및 편년을 진행하고자 한다. 부의 명칭은 <그림 2>와 같이 정리하였다.

(1) 형식분류

<표 14> 부의 속성분류

공부의 단면형태에 따른 분류			
방형(Ⅰ)	말각방형(Ⅱ)	타원형(Ⅲ)	원형(Ⅳ)
			
평면형태에 따른 분류			
장방형(a)	플라스크형(b)	제형(c)	
			

부의 형식분류에서 1차적인 속성은 공부의 형태에 주목하였다. 공부의 형태는 자루로 쓰이는 목재와의 결구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단조 철부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는 최영민(2010)의 견해가 주목된다. 단조 철부의 제작은 철판의 상부를 넓게 펴 ‘T’자형으로 만든 후 좌우를 말아 공부를 형성하였다(최영민, 2010, 39쪽.). 부는 기본적으로 실용구이기 때문에 제작 당시에 자루를 장착하여 완제품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공부를 성형하기 위해서는 자루로 쓰일 목재를 ‘T’자형의 판형 안에 안치시킨 후 단조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공부의 형태는 자루의 형태에 따라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적에서 출토된 모든 철부의 공부에서 목질흔이 확인된 점

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부의 공부 단면형태는 장방형·말각방형·타원형·원형으로 확인되었다. 당시로서는 고급기술인 철기는 한번 제작하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루는 목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의 위험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루가 파손되었을 경우 자루만 따로 제작하여 재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부의 단면형태는 자루 제작의 편의성에 따라 변화하였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목재를 장방형으로 손질하는 것보다는 원형으로 손질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공부 단면형태 변화는 부의 실용적 발전양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으면서 시간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속성으로 선정하여 1차 분류를 진행하였다.

공부의 단면형태 이외에 주목되는 속성은 평면 형태이다. 평면 형태는 특히 인부의 너비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공부에서 인부로 이어지는 형태의 변화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속성이라 볼 수 있다. 부에서 인부의 너비 변화는 부의 기능적 특징이 부각되는 변화로 인식하였다. 인부의 너비는 부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에 충실한 변화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차 분류는 부의 평면 형태를 주요 속성으로 선정하여 형식분류를 진행하였다.

철부의 평면 형태는 크게 장방형(a)·플라스크형(b)·제형(c)으로 분류하였다. a형은 공부에서 인부까지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전체적으로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b형은 공부는 장방형 또는 방형이지만 인부는 제형으로 인부와 공부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c형은 상대적으로 너비가 적은 공부에서 너비가 넓은 인부까지 굴곡 없이 진행되며 평면상 공부와 인부의 구분이 거의 없다.

이상의 속성을 바탕으로 형식분류를 진행하면 크게 3가지의 형식으로 구분된다. A형식은 Ia형, IIa형, IIIa형이 포함된다. 공부단면의 형태는 원형을 제외한 모든 형태가 확인되지만 평면 형태는 장방형만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토기와외 공반관계를 보면 각 세부형식은 시간적인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특히 IIIA형식의 경우에는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도 이른 시기의 유물로 판별되는 유개 대부호와도 공반 되어 출토되었지만 비교적 늦은 시기의 토기 유물인 원저단경호와 평저발형토기의 조합과도 공반되고 있으므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양상이 확인된다.

한편 Ia형의 철부는 공부의 결구 형태를 보면 주조철부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낙랑계 주조철부의 원형을 모방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조철부의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실용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鐵鋌과 같이 철소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류위남, 2009). 그러나 대부분 부의 공부에 목질흔이 남아 있는 점과 I기 내에서 공부의 형태 변화가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이어진 점으로 미루어 실제 공구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조철부의 한반도 유입에 대해서는 한반도 서북부지역으로 도입된 후 낙랑을 통하여 한반도의 서남부·동남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상민, 2009). 따라서 Ia식의 철부가 주조철부의 원형을 모방하였다면 이 지역의 철기유입이 낙랑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자료가 될 것이다.

B형식의 부에는 IIIb형, IIIc형이 포함된다. 부의 공부 단면 형태는 타원형과 원형만 나타나며, 평면 형태는 플라스크형과 제형으로 확인된다. 평면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은 A형식의 철부에 비해 인부의 너비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용성을 중점에 두고 제작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C형식의 부는 IVa형으로 분류하였다. 공부의 단면 형태는 원형만 확인되었고 평면 형태는 b형이다. I-6-7호 토광묘에서 단 1점만 출토되었다.¹⁴⁾

14) 청주 송절동 유적의 정식 발굴보고서에서는 주거지 등의 생활유적에서도 철부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주 송절동 유적의 고찰에서는 보고

<표 15> 부의 형식분류(1/8)

형식	대표유물	출토유구
A 형식	I a	1.Ⅱ-1-12호 토광묘 2.Ⅱ-1-28호 토광묘 3.Ⅱ-1-36호 토광묘
	II a	4.Ⅱ-1-56호 토광묘 5.Ⅱ-1-27호 토광묘 6.Ⅱ-1-88호 토광묘
	III a	7.Ⅱ-1-7호 토광묘 8.Ⅱ-1-41호 토광묘 9.Ⅱ-2-3호 토광묘
		10.Ⅲ-5-3-6호 토광묘
B 형식	III b	1.Ⅱ-1-31호 토광묘 2.Ⅱ-4-34호 토광묘 3.Ⅲ-5-1-14호 토광묘
	III c	4.Ⅱ-4-37호 토광묘 5.Ⅲ-5-2-7호 토광묘 6.Ⅲ-5-2-15호 토광묘
C 형식	IV b	I-6-7호 토광묘

자의 견해를 반영하여 모두 철부로 분류하여 고찰을 진행하였지만 논문에서는 인부의 양쪽이 마모되어 원형을 알 수 없는 개체는 모두 제외하였다. 다만 Ⅲ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던 모든 철부들은 공부의 단면 형태가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부의 변화가 시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 편년

위와 같은 형식분류를 바탕으로 순서배열표를 작성하면 <표 16>과 같다. 순서배열 결과 3기로 분기설정이 가능하다.

<표 16> 철부 순서배열표

분 기	형식 출토유구	A 형식						B 형식			C 형식		
		I			II			III			IV		
		a	b	c	a	b	c	a	b	c	a	b	c
I 기	II-1-12호 토광묘	●											
	II-1-28호 토광묘	●											
	II-1-36호 토광묘	●											
	II-1-56호 토광묘	●											
	II-1-27호 토광묘				●								
	II-1-88호 토광묘				●								
	III-5-1-12호 토광묘				●								
	II-1-7호 토광묘							●					
	II-1-41호 토광묘							●					
	II-1-60호 토광묘							●					
	II-1-67호 토광묘							●					
	II-2-3호 토광묘							●					
	II-6-3호 토광묘							●					
	III-5-3-6호 토광묘							●					
II 기	V-6-1호 토광묘							●					
	II-1-31호 토광묘								●				
	II-4-16호 토광묘								●				
	II-4-34호 토광묘								●				
	II-4-44호 토광묘								●				
	III-5-1-14호 토광묘								●				
	II-4-37호 토광묘									●			
	II-4-51호 토광묘									●			
	III-5-1-15호 토광묘									●			
III기	III-5-2-7호 토광묘									●			
	I-6-7호 토광묘											●	

먼저 I 기는 A형식이 주를 이루는 단계이다. I 기의 철부와 공반되어 출토된 유물은 유개대부호를 비롯하여 원저발형토기, 철촉, 철모, 양단환부봉 등이 있다. 특히 IIIa형식의 철부는 유개대부호와도 공반되어 출토되지만 원저단경호·평저발형토기와도 함께 출토되어 II기와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물의 공반 관계를 통하여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하면 2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3세기 중반 이후까지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I 기의 부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공부 단

면의 형태는 변화하지만 평면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특히 평면 형태에서 변화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주조철부의 원형을 본따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초기 단조철부의 전통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주조철부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일부 토광묘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므로 아직은 제의적인 기능이 강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Ⅱ기는 B형식의 부가 중심을 이룬다. Ⅱ기의 철부와 공반되어 출토된 유물은 원저단경호와 평저발형토기의 조합이 주를 이룬다. 원저단경호와 평저발형토기의 조합은 3세기 중반이후를 중심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I 기의 부와 일부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가장 기존의 축약형의 평면 형태가 점차 인부가 넓어지면서 플라스크형 또는 제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선 시기의 제의적 기능이 유지된 상태에서 점차 부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Ⅲ기는 C형식의 부가 중심을 이룬다. I-6-7호 토광묘에서만 출토되어 표본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부 단면의 형태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I-6-7호 토광묘에서 부와 함께 출토된 토기는 원저단경호·평저소호·평저발형토기 등이 있다. 이 시기의 원저단경호는 전 시기에 비하여 장동화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견부가 발달하기도 하며, 평저발형토기는 이전 시기의 무문에서 타날문이 첨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유공호·파배 등의 토기 유물이 등장하는 시점이기도 하다(충북대학교 박물관 외, 2018, 72-75쪽.). 토기유물의 이러한 변화는 4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편년되고 있다. 따라서 Ⅲ-기의 절대연대는 토기의 변화 양상과 도·모 등의 다른 철기유물의 공반상태로 미루어 4세기 중반을 중심시기로 편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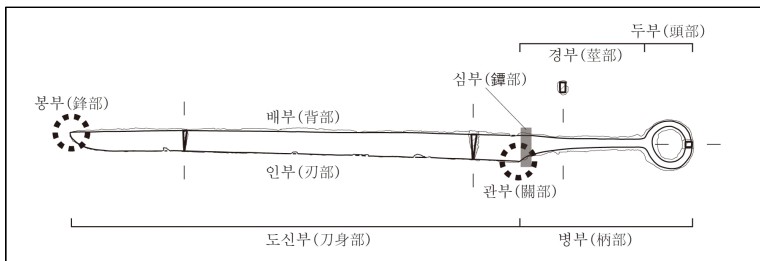
부의 변화양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용적인 측면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초기의 부가 주조철부의 원형을 본 따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I 기의 부는 기능적으로도 주조

철부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주조철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덤에서 부장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제의적인 기능이 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I기에서는 공부단면의 형태가 타원형이 주를 이루며 인부가 넓어지면서 평면 형태가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의적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용구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III기의 부는 단 1점만 출토되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인부가 넓어지고 공부 단면의 형태가 원형으로 확인된 점은 앞선 시기보다 실용적인 측면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武器類

1) 刀

도는 일반적으로 길이에 따라 소도, 중도, 대도의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단도를 상정하거나 대도를 두 그룹이나 세 그룹으로 세분하기도 한다(김신혜, 2009, 2-5쪽.). 또한 도는 몸에 지니거나 달고 다니는 철제의 짧은 칼인 도자(刀子)와 구분된다(노태호, 2014). 도의 편년 검토에서는 김신혜(2009, 54-58쪽.)의 안에 따라 도신부장이 25cm 미만인 것은 도자로 분류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도의 각부 명칭은 <그림 3>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3> 도의 명칭안(I-6-14호 토광묘 출토 환두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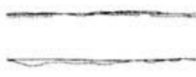
(1) 형식분류

도의 형식분류에 사용되는 속성은 명목적 속성으로 병부의 형태와 관부의 형태가 있고, 연속형 속성으로는 전장, 경부장/도신부장, 경부 폭/도신부폭 등이 있다(김신혜, 2009, 52-58쪽.). 도의 검토에서는 가장 부각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형식분류를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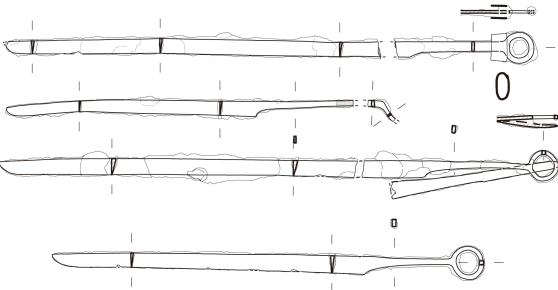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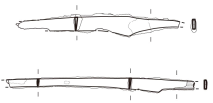
도의 속성분류는 먼저 환두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 환두장식의 유무는 도의 형식적 특징에서 가장 부각되는 특징이다. 두부에 환두장식이 있는 것은 환두도(Ⅰ), 환두장식이 없는 무환두도(Ⅱ)로 구분하였다. 무환두도는 일반적으로 木柄刀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도는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木柄의 물리적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목병도라는 용어보다는 형태적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무환두도로 용어를 정리하였다.

환두도와 무환두도에서 포괄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속성은 관부의 형태이다. 관부는 경부와 도신부의 경계부분이다. 많은 연구자가 관부를 주목하는데, 어떤 속성보다도 시간적인 흐름을 잘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성정용, 2000; 김신혜, 2009; 노태호, 2014; 조현경, 2015). 관부 형태는 무관(a), 편관(b), 양관(c)으로 나누어진다.

<표 17> 도의 속성분류

환두의 유무에 따른 분류		
		
환두식(Ⅰ)	무환두식(木柄刀-Ⅱ)	
관부의 형태에 따른 분류		
		
무관(a)	편관(b)	양관(c)

<표 18> 도의 형식분류(1/10)

형식	세부 형식	대표유물
A형식	Ⅱa	
B형식	Ⅰb	
	Ⅱb	
	Ⅱc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환두도(Ⅰ)는 모두 4점으로 관부형태는 모두 편관식으로 확인되었다. 환두도는 모두 Ⅰb형식으로 분류하였다. Ⅰb형식의 환두도는 I-6-3호·11호·14호·25호 토광묘에서 확인되었으며, 파배·단경호·평저호·유공호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Ⅱa형식은 무환두도의 범주에서 관부의 형태가 무관식인 것으로 전체 유적에서 Ⅱ-4-79호 토광묘에서만 확인되었고 단경호·철촉과 함께 출토되었다.

Ⅱb형식은 관부의 형태가 편관식인 무환두도로 I-6-7호 토광묘와 I-6-17호 토광묘에서 확인되었고 대표적인 공반유물로는 장동화가 진행된 원저단경호와 평저호 등이 있다. Ⅱc형식은 관부의 형태가 양관식인 무환두도로 I-6-22호 토광묘에서만 출토되었으며, 공반 토기

로는 원저단경호·소호·파배 등이 있다.

다만 A형식은 무관식의 무환두도로 단 1점만 확인되었는데, 속성분류상 IIa형식에 해당한다. B형식은 관부가 형성된 무환두도 또는 환두도로 속성분류상 Ib, IIb, IIc식을 모두 포함한다. Ib, IIb, IIc식은 토기의 공반 관계상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모두 하나의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2) 편년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도의 대부분은 I-6지점에서 출토되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공반유물과의 관계에서도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도의 변화양상은 성정용(2000)의 분기설정과 김신혜(2009)의 분기설정을 중심으로 분기별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김신혜(2009, 68-71쪽.)는 도의 분기설정 기준을 관부형태의 변화로 설정하였다. 편관의 등장이전을 I기, 무관의 지속과 편관의 등장을 II기, 양관의 등장을 III기, 편관이 소멸되고 양관만 지속되는 시기를 IV기로 구분하였다. I는 3세기 초반으로 편년하였고, II기는 3세기 후반~4세기 초반, III기는 4세기 후반~5세기 초반, IV기는 5세기 후반~6세기 초반으로 편년하였다. A형식의 도는 환두장식이 없고 관부의 형태가 무관식인 것으로 미루어 김신혜의 분기설정에서 I기 또는 II기에 해당한다. A형식의 도는 함께 출토된 철모가 3세기 중반 이후로 편년되고 있기 때문에 3세기 후반을 중심시기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정용(2000, 131-133쪽.)은 4세기 후반부터는 3세기에 素環頭大刀로만 제작되던 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 소환두대도가 장식대도로 분화하고 목병중도(무환두식)와 대도가 무기체계로 자리 잡는 것으로 보았다. B형식의 환두도는 모두 소환두대도인데 같은 형식의 무환두도와 토기의 공반 관계상 유사점이 많다. 성정용(2000)의 분기설정에 따르면 4세기 후반은 무기의 체계가 변화하여 목병중도와 대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 시기이다. 소환두대도와 무환두도가 공반 토기와와의 관계상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B형식의 도는 같은 시기로의 편년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정용(2000)의 분기 설정에서 4세기 후반보다는 늦지 않은 4세기 중반을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형식의 도는 II-4-79호 토광묘에서 단 1점만 출토되었고 공반되어 출토된 토기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토기를 통한 상대 편년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A형식의 도와 함께 출토된 모와 같은 형식은 다른 유구에서도 출토되어 주목된다. II-4-79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모는 모의 분기설정에서 2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께 출토되는 대표적인 토기조합은 원저단경호와 평저발형토기이다.

B형식의 도와 함께 출토되는 대표적인 토기로는 파배·단경호·평저호·유공소호 등이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출토되는 원저단경호는 장동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고, 파배·유공호·직구호 등 새로운 기형의 토기가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들마다 약간씩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4세기 중반을 중심시기로 편년된다.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청주 송절동 유적과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도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도는 3세기 전반기에 중서부 해안지역을 기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의 도는 무관식의 환두도로 환두에는 별다른 장식이 가미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3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환두도와 목병도가 함께 출토되는 양상이 확인되는데 관부의 형태는 편관이 중심을 이룬다. 4세기 후반 이후에는 장식환두도가 등장하며 관부의 형태가 양관으로 변화한다. 환두대도의 출토량이 늘어나며, 목병도는 중도 또는 소도로 제작된다. 또한 전체적인 수량이 늘어나면서 급진적 발전을 이루는데 백제의 팽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5세기 후반부터는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영산강 유역까지도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관부의 형태는 환두도와 목병도 모두 양관이 주를 이루고 경부의 형태가 세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성정용, 2000; 김신혜, 2009).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A형식의 도는 3세기 후반을 중심시기

로, B형식의 도를 4세기 중반을 중심시기로 편년이 가능하다. 각 형식별 편년검토와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분기를 설정하였다.

I기는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도가 출현하는 시기이다. 유적에서는 단 1점만 확인되었지만 함께 출토된 모와 토기의 양상으로 미루어 도가 부장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이전시기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도의 출현을 병종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성정용, 2000; 김신혜, 2009). 도는 보병이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기로, 도가 출현하기 전보다는 좀 더 조직적인 군대가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II기는 도의 출토빈도가 II기에 비하여 늘어나는 시기이다. 이전 단계에서는 볼 수 없던 환두도가 등장하기도 하며, 관부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기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관부의 형태가 변화하는 순서가 무관→편관→양관 순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성정용, 2000; 김신혜, 2009; 성수일, 2016 등). II기의 도에서 관부 형태가 무관인 개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편관과 양관의 도가 동일한 토기를 공반한 상태로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도에서 관찰되는 형태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혼용되는 상태의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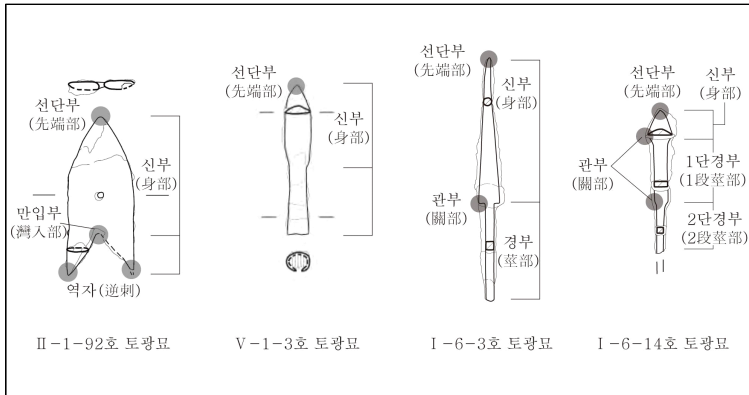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도는 관부형태의 변화만으로도 I기와 II기는 단절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각 분기에서 도와 함께 부장된 토기유물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심연대간의 시간적 차이는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鍬

촉은 무기류 유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다. 촉이 확인된 총 39기의 유구에서 평균 4.2개가 출토되어 단위 유구 당 가장 높은 출토 비율을 보이고 있다. 원삼국시대의 촉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성정용, 2000; 함재욱, 2011; 조규

회, 2013). 근래의 연구에서는 경부의 형태를 축의 주요 속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부의 형태 변화는 살대를 연결하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최근 발굴조사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평면 형태의 축이 단일 유구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4). 이로 보아 평면 형태는 시간성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철축은 대체로 청동기시대의 석축의 변화와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이며 기본적인 형태인 삼각만입식부터 평면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논문에서는 철축자체의 세분화된 편년보다는 개괄적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림 4> 철축 유형별 명칭안(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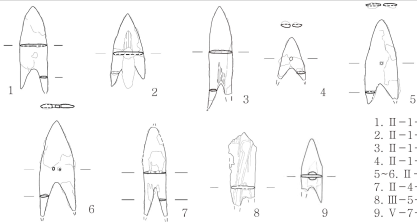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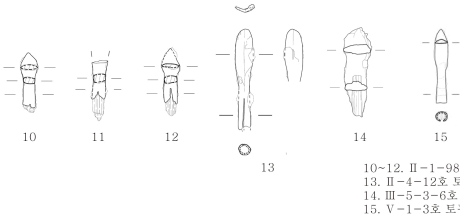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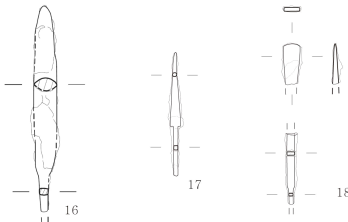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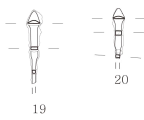
축에 대한 검토에서는 경부의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축의 명칭은 축 자체의 형태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축의 명칭은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그림 4>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형식분류

철축의 형식분류는 철축의 다양한 속성 중 중심 속성을 선별하여

형식분류를 진행하였다.

[표 19] 축 형식분류표(1/4)

형식	속성 분류	대표유물
A 형식	만입식(a)	 1. II-1-23호 토광묘 2. II-1-46호 토광묘 3. II-1-56호 토광묘 4. II-1-74호 토광묘 5-6. II-1-92호 토광묘 7. II-4-56호 토광묘 8. III-5-2-20호 토광묘 9. V-7-3호 토광묘
	무경식(I)	 10-12. II-1-98호 토광묘 13. II-4-12호 토광묘 14. III-5-3-6호 토광묘 15. V-1-3호 토광묘
B 형식	공부식(b)	
C 형식	1단경식(c)	 16. II-4-48호 토광묘 17. I-6-3호 토광묘 18-20. I-6-14호 토광묘
	2단경식(d)	

먼저 1차 분류는 먼저 경부의 유무를 기준으로 경부가 없는 형태는 무경식(I), 경부가 있는 형태는 유경식(II)으로 분류하였다. 2차 분류는 축과 살대를 연결하는 기술적 방식의 차이로 분류하였다. 경부가 없는

만입식(a), 철관을 둥글게 말아 살대를 축에 끼우는 형태인 공부식(b), 경부의 역할이 스페로서 살대에 축을 끼울 수 있는 형태인 1단경식(c), 스페와 함께 1단의 관부가 존재하는 형식인 2단경식(d)로 분류하였다.

먼저 A형식은 무경만입식(Ia) 철축에 해당한다. A형식 축의 평면 형태는 대부분 역자형으로 축신부의 길이가 짧은 것과 긴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축신의 중앙부에 투공이 뚫린 것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유구에서 출토되는 예가 많아 평면 형태나 축신부의 길이, 투공의 유무에 따른 시기구분은 어렵다.

B형식은 무경공부식(Ib) 철축으로 구성된다. B형식 축의 수량은 그리 많지는 않으나 단독으로 출토되는 경우는 없고 다수의 A형식의 축과 함께 부장되거나 C형식의 축과 함께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순서배열상 A형식과 C형식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C형식은 유경식의 모든 축으로 분류하였다. 속성분류상 1단경식(II c)과 2단경식(II d)에 해당한다. 다만 1단경식의 철축은 단독으로 출토되거나 무경만입식, 무경공부식 철축과 공반되는 양상이 확인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B형식의 축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평면 형태는 단일유구에서 유엽형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사두형이 일부 포함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출토수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유엽형의 철축만 단독으로 출토되기도 하였다. 2단경식(II d) 축은 출토수량이 매우 적고 축끼리의 공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시기적 연속성을 추정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공반 토기와와의 관계상 1단경식(II c)의 축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형식분류에 따른 출토양상을 바탕으로 그동안 호서지역에서 출토된 철축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참고(함재욱, 2011; 조규희, 2013)하여 순서배열표를 작성해 보면 <표 20>과 같다.

중서부지역에서 원삼국시대 철축이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3세기 전반 무렵으로 편년하고 있다. 중서부 해안지역은 2세기 중반 무렵으로 편년되기도 한다(조규

회, 2013). 초기 철축의 형태는 삼각만입식으로 청동기시대의 만입식
성축의 형태를 계승

<표 20> 철축 순서배열표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함재옥, 2011,
55쪽.).

철축의 변화 양상
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경부제작 기술
의 발전이다. 경부
제작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는 3세기
중·후반을 기점으
로 2단경식의 철축
이 등장하면서 점진
적으로 축신부의 길
이가 장신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살
대를 연결하는 방식
에 커다란 획기를
맞이하면서 철축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
타나며 특히 2단경
식 철축의 등장이
주목된다.

4세기 중반 이후
에는 2단경식의 철
축이 주를 이루게
되며 백제의 영향력
이 확대되면서 백제

분기 설정	유구명	출 토 수 량	A	B	C	
			형식 무경식	형식	유경식	
			(I)		(II)	
			만입 식 (a)	공부 식 (b)	1단 경식 (c)	2단 경식 (d)
I 기	Ⅱ-1-11호 토광묘	1	●			
	Ⅱ-1-22호 토광묘	1	●			
	Ⅱ-1-23호 토광묘	6	●			
	Ⅱ-1-28호 토광묘	4	●			
	Ⅱ-1-33호 토광묘	12	●			
	Ⅱ-1-42호 토광묘	2	●			
	Ⅱ-1-50호 토광묘	11	●			
	Ⅱ-1-53호 토광묘	1	●			
	Ⅱ-1-56호 토광묘	11	●			
	Ⅱ-1-60호 토광묘	1	●			
	Ⅱ-1-63호 토광묘	15	●			
	Ⅱ-1-67호 토광묘	1	●			
	Ⅱ-1-70호 토광묘	1	●			
	Ⅱ-1-73호 토광묘	6	●			
	Ⅱ-1-74호 토광묘	8	●			
	Ⅱ-1-77호 토광묘	1	●			
	Ⅱ-1-87호 토광묘	1	●			
	Ⅱ-1-90호 토광묘	9	●			
	Ⅱ-1-92호 토광묘	12	●			
	Ⅱ-1-97호 토광묘	10	●			
	Ⅱ-4-9호 토광묘	7	●			
	Ⅱ-4-27호 토광묘	1	●			
	Ⅱ-4-56호 토광묘	1	●			
Ⅱ 기	Ⅲ-5-2-20호 토광묘	1	●			
	Ⅲ-5-2-22호 토광묘	1	●			
	Ⅲ-5-3-6호 토광묘	3	●			
Ⅲ 기	V-7-3호 토광묘	5	●			
	Ⅱ-1-3호 주구토광묘	2	●	●		
	Ⅱ-1-98호 토광묘	8	●	●		
	Ⅱ-4-12호 토광묘	3	●	●	●	
	Ⅱ-4-48호 토광묘	1			●	
Ⅳ 기	I-6-3호 토광묘	1			●	
	I-6-14호 토광묘	4				●

권역 내에서 출토되는 철촉은 정형화된 양상을 보인다. 5세기에 들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화되는데 아직 마한의 전통이 남아 있는 영산강유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서부지역에서 정형화된 형태의 철촉이 출토된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백제의 확장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함재욱 2011; 조규희 2013).

(2) 편년

철촉은 대부분이 분묘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분묘유구는 청주 송절동 유적 I지구, II지구, III지구에서 조사되었는데, 조사된 분묘유구 중 철촉이 출토된 유구는 130여 기에 이른다.

먼저 I기는 무경만입식 철촉이 주를 이루는 단계로 대부분이 I기에 해당한다. 주류를 이루는 A형식 철촉의 평면 형태는 역자형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축신부의 너비가 넓어지는 형태, 축신부의 양쪽이 수직으로 평행한 형태, 역자가 벌어지는 형태, 역자가 좁아지는 형태 등으로 나타나는데, 단일 유구에서 함께 출토되는 사례가 확인(II-1-33호 토광묘, II-1-55호 토광묘, II-1-63호 토광묘 등)되어 각각의 평면형태가 시간성을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I기의 철촉 출토양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주변의 유적을 살펴보면 천안 청당동 유적, 청원 송대리·상평리 유적 등이 있다. 먼저 천안 청당동유적은 중심연대를 3세기대로 설정하고 최소 2단계 정도의 시기차가 존재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청원 송대리·상평리 유적 또한 3세기를 중심연대로 설정하였다.

II기는 B형식의 철촉이 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무경만입식 철촉이 여전히 주를 이루는 가운데 무경공부식 철촉이 공반되거나 1단경식의 촉이 공반되기도 한다. 평면 형태는 대체로 유엽형으로 나타나며, 출토수량이 많지 않고 다른 형식과 함께 출토되어 무경식 철촉에서 유경식 철촉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시기로 추정된다. II기와 유사한 출토양상을 보이는 주변유적으로는 송절동 고분군과 청원 송대리 유적 등이 있다.

Ⅲ기는 무경식 철축이 소멸하고, 유경식 철축이 성행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유경식 철축이 무경식 철축과 공반되지 않고 단일 유구에서 출토되는 철축의 수량도 현저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1단 경식의 철축이 출토된 유구에서 공반된 토기는 Ⅱ기의 토기 출토 양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축의 형태 변화상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다만 Ⅱ기의 토기와 Ⅲ의 공반 토기가 중복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자들의 견해에 따라 경부의 형태 변화가 하나의 획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이 시기를 Ⅲ기로 설정하였다.

주변유적을 토대로 살펴보면 I ~Ⅲ기는 대체로 3세기를 중심연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Ⅲ기의 유형이 출토된 봉명동 유적의 성격을 송절동기에서 신봉동기로 가는 과도기(충북대학교박물관, 2005)로 인식하고, 청당동 유적에서의 2단계의 시기차이, 청원 송대리 31호 토광묘의 방사성연대측정결과¹⁵⁾를 토대로 보면 분기별 절대연대는 중복관계를 전제로 분기설정이 가능하다.

I 기는 공반되어 출토된 유개대부호(Ⅱ-1-73호 토광묘)의 편년이 2세기 중반까지도 상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세기 중반을 상한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I 기의 철축은 다른 형식의 철축과 함께 부장되면서 비교적 오랜 동안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철축만으로는 하한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중심이 되는 시기를 원저발형토기가 함께 출토되는 시기로 설정한다면 3세기 초반이 중심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Ⅱ기는 원저단경호와 원저발형토기가 조합을 이루는 단계부터 평저발형토기가 나타나는 단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3세기 초·중반을 중심으로 3세기 후반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무경만입식의 철축이 여전히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전 시기의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여겨진다.

15) 송대리 31호 토광묘에서 수습된 목재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 B.C.30 ~ A.D.220년으로 산출되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Ⅲ기는 경부의 발전이 거의 완료되어가는 시점으로 보인다. 더 이상 무경식의 철촉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자들의 견해를 참고하면 3세기 후반~4세기대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시기로 유추가 가능하며, 중심시기는 4세기 전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유물의 변화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촉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술적 혁신이 일어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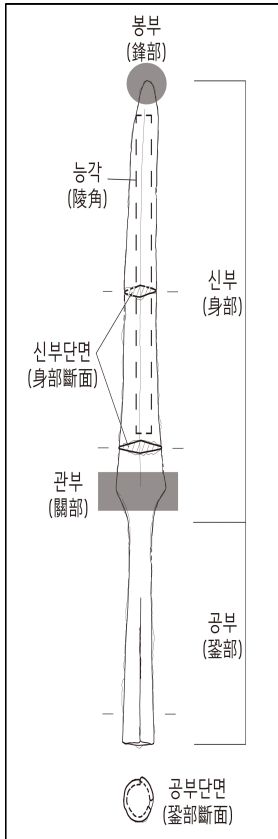
촉은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유물 가운데 가장 높은 출토비율을 보인다. 출토된 촉의 대부분은 무경만입식 철촉으로 전반적인 변화양상을 보면 무경식에서 유경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철촉의 변화에서 가장 큰 획기는 2단경식 촉의 등장이라 볼 수 있다. 1단경식의 촉은 무경식의 촉과도 함께 출토되는 양상이 확인되기 때문에 단순히 경부의 존재만으로 획기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르면 3세기 후반 적어도 4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전 시기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함재욱(2011)은 이러한 형식상의 조형이 낙랑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낙랑지역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한강유역의 철촉 형식의 구성 역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간접적으로나마 이러한 변화가 백제의 확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비록 유적에서는 많은 양이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경부가 길어지고 촉진부가 짧아지는 현상과 더불어 착두형과 같은 형식의 등장은 촉을 활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변화는 살상력의 증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공기저항을 최소화하여 살상력을 증대시키고 한편으로는 특정 용도의 철촉을 제작함으로써 주변의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3) 矛

모는 근거리 무기이자 장병기로서 도·촉과 함께 고대 무기체계의 핵심이다(성정용, 2000, 110쪽.).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는 대부분이 분



<그림 5> 철모의
명칭안
(Ⅱ-1-56호 토광묘-1/5)

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총 27기의 유구에서 28점이 확인되어 대체로 유구당 1점이 출토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공부의 형태와 관부의 유무를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파악하고 있다.(김길식, 1994; 성경용, 2000; 신동조, 2008; 김새봄, 2011; 진수현, 2015 등). 모의 검토는 개괄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 연구자들의 형식 분류안을 참고하여 시기성을 반영하는 속성을 중심으로 형식분류를 진행하였다. 철모의 각 부분별 명칭은 <그림 5>와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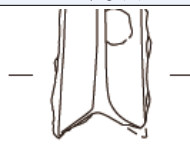
(1) 형식분류

모의 속성분류에 있어서 1차 분류는 관부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관부의 형태는 크게 1단관식과 2단관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적에서는 1단관식의 모만 출토되었기 때문에 1단관식 내에서 관부의 형태를 추출하였다. 관부의 형태는 크게 신부에서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관부가 돌출되어 최대폭을 이루는 형태(돌출형-I), 신부에서 관부까지 직선적으로 내려오다가 공부로 축약되는 형태(축약형-II)의 2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2차 분류는 공부의 말단 형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공부의 말단 형태는 철모 제작방식과 직결되는 속성이다. 특히 공부 말단의 형태는 시간성이 가장 잘 반영되는 속성으로 연구되었다(김길식, 1994; 성경용,

2000; 진수현, 2015). 공부의 말단 형태는 크게 직기형(a)과 연미형(b)으로 구분된다.

<표 21> 모의 속성분류

관부의 형태에 따른 분류	공부 말단의 형태에 따른 분류
돌출형(I)	직기형(a)
	
축약형(II)	연미형(b)
	

이상의 속성을 조합하면 유적에서 출토된 철모의 형식은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A형식은 관부 I형, 공부 말단부 형태 a형으로 II-1지점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철모가 이 형식에 해당한다. 신부의 길이가 짧은 것과 긴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공부의 길이는 신부의 길이에 비하여 짧은 형태이다. 완형으로 출토된 철모를 기준으로 측정한 공부와 신부의 길이 비율의 평균은 1(공부):1.7(신부)로 신부가 가장 긴 철모의 비율은 1:2.6, 가장 짧은 철모의 비율은 1:1.4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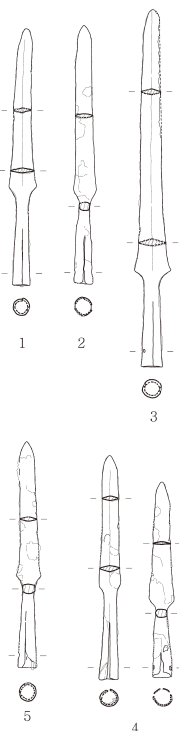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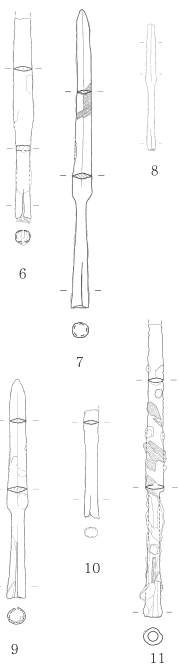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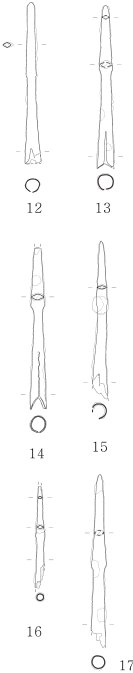
B형식은 관부 II형, 공부말단부 a형으로 II-4지점과 III-5지점에서 출토된 철모의 대부분이 이 형식에 해당한다. 완형으로 출토된 철모를 기준으로 측정한 공부와 신부의 길이 비율의 평균은 1(공부):1.3(신부)로 신부가 가장 긴 철모의 비율은 1:1.2, 가장 짧은 철모의 비율은 1:1.5로 나타난다.

C형식은 관부 II형, 공부말단부 b형으로 I 지구와 VII에서 출토된 철모가 이 형식에 해당한다. 완형으로 출토된 철모를 기준으로 측정한

공부와 신부의 길이 비율의 평균은 1(공부):0.7(신부)로 신부가 가장 긴 철모의 비율은 1:0.6, 가장 짧은 철모의 비율은 1:0.9로 나타난다.

공부와 신부의 비율에 따른 변화는 유물의 잔존상태를 고려하여 전체 형식분류의 기준으로는 선정하지 않았지만 A식에서 C식으로 갈수록 신부의 길이가 짧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부의 형태는 돌출형에서 점차 퇴화하다가 축약형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된다.

<표 22> 철모의 형식분류표(1/8)

A형식	B형식	C형식
I a(돌출/직기형)	IIa(축약/직기형)	IIb(축약/연미형)
 1. II-1-56호 토광묘 2. II-1-70호 토광묘 3. II-1-71호 토광묘 4. II-1-74호 토광묘(2점) 5. II-1-101호 토광묘	 6. II-1-33호 토광묘 7. II-4-25호 토광묘 8. II-4-55호 토광묘 9. II-4-79호 토광묘 10. II-4-67호 토광묘 11. III-5-3-6호 토광묘	 12. I-6-3호 토광묘 13. I-6-4호 토광묘 14. I-6-11호 토광묘 15. I-6-14호 토광묘 16. I-6-17호 토광묘 17. I-6-25호 토광묘

기존의 연구에서 중서부지역 모의 형식변화상에서 가장 이른 시기는 2세기 후반 무렵으로 편년된다. 철모의 최초 출현시기는 평택 마두리 유적과 경주 황성동 575번지 유적의 공반관계를 토대로 2세기 초반으로 편년하기도 한다(김새봄, 2011).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는 2세기 초반 무렵으로 편년되는 토기인 주머니호·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등이 출토되기는 하였지만 철기는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모 도입단계의 양상은 확인할 수 없다. 중서부지역의 철모의 편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철모와 함께 출토되는 토기는 유개대부호·원저발형토기의 조합이다. 이 시기의 철모는 관부의 돌출이 부각되며, 평택 마두리 유적에서는 2단관식의 철모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3세기대에 접어들면서 2단관식의 철모는 점차 사라지고 돌출이 뚜렷하게 관찰되던 관부의 형태는 축약되기 시작한다. 토기의 조합상으로도 유개대부호가 함께 부장되는 양상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원저단경호가 중심이 되는 출토양상을 보인다. 연구자들 마다 이시기의 상한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하한은 대체로 3세기 중반으로 편년되고 있다(성정용, 2000; 김새봄, 2011; 성수일, 2016).

3세기 후반 무렵에는 연미형의 철모가 등장한다. 관부의 형태는 점차 희미해지며 신부의 길이가 짧아진다. 앞선 시기보다 찌르는 기능이 강화된 형태로의 변화가 검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정용(2000, 137쪽.)은 이러한 현상이 갑주체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이전시기의 변화상에 비하면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토기에서도 원저단경호 중심의 부장체계에서 기종이 다양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후 4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연미형의 철모가 중심이 되면서 직기형이 철모는 소멸하게 된다. 다양한 길이의 철모가 제작되면서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철모의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며 특히 기병을 위한 창 존재로 상정되기도 한다.(성정용, 2000, 137쪽.). 주로 토광묘 계열의 묘제가 사용되지만 석

곽·석실과 같은 형식의 묘제가 확인되기도 하는데 이는 백제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미친 결과라 볼 수 있다(성정용, 2000).

이상의 형식분류와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된 철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참고(성정용, 2000; 신동조, 2008; 김새봄, 2011; 진수현, 2015; 성수일, 2016)하여 순서배열표를 작성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 철모 순서배열표

분기	유구명	출토 수량	A 형식	B 형식	C 형식
I 기	II-1-56호 토광묘	1	●		
	II-1-70호 토광묘	1	●		
	II-1-71호 토광묘	2	●		
	II-1-74호 토광묘	1	●		
	II-1-101호 토광묘	1	●		
	V-7-3호 토광묘	1	●		
II 기	II-1-26호 토광묘	1		●	
	II-1-33호 토광묘	1		●	
	II-1-86호 토광묘	1		●	
	II-4-25호 토광묘	1		●	
	II-4-32호 토광묘	1		●	
	II-4-37호 토광묘	1		●	
	II-4-55호 토광묘	1		●	
	II-4-67호 토광묘	1		●	
	II-4-79호 토광묘	1		●	
	II-4-4호 주구토광묘	1		●	
	III-5-3-6호 토광묘	1		●	
III기	I-6-3호 토광묘	1			●
	I-6-4호 토광묘	1			●
	I-6-7호 토광묘	1			●
	I-6-11호 토광묘	1			●
	I-6-17호 토광묘	1			●
	I-6-18호 토광묘	1			●
	I-6-22호 토광묘	1			●
	I-6-25호 토광묘	1			●
	VII-1-143호 주거지	1			●
	VII-3-165호 주거지	1			●

(1) 편년

I 기는 A형식의 모가 주를 이루는 단계로 대표적인 공반 토기는 단

경호, 원저발형토기, 유개대부호 등이 있다.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A형식의 철모와 다른 유물과의 공반관계,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I 기의 시기를 추정하면 공반된 유물의 부장양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중심연대는 대체로 2세기 중반~ 3세기 초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다만 II-1-73호 토광묘에서 철모와 함께 출토된 철정이 2세기 후반의 표지유물로 보는 견해(김일규, 2018)를 감안하면 I 식의 철모가 출토되는 중심시기를 2세기 후반으로 보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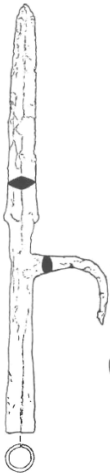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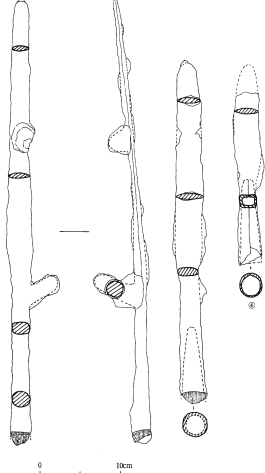
II기는 B형식의 모가 주를 이루는 단계로 B형식의 모가 출토되는 토광묘에서는 대부분 다수의 단경호가 함께 부장된다. B형식의 철모와 토기와의 공반관계,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2기의 중심연대는 3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적어도 3세기 후반까지는 하한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II기에서 공반하여 출토되는 토기와 I 기의 공반 토기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몇몇 유구에서 확인되고, 관부의 형태가 돌출형의 전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퇴화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통하여 유적의 시간적 연속성을 고려하면 1기의 시기와 어느 정도 중복되는 시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기의 상한은 1기의 후반인 3세기 초반으로 소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와 관련된 주변 유적으로는 연기 응암리 유적 5호 토광묘, 청원 상평리 16호 토광묘 등이 있다.

한편 송절동고분군 92-4호 토광묘에서 이 시기의 철모와 함께戟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극은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 분묘유구에서 찾아보기 힘들 매우 특수한 기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극은 종방향의 모와 횡방향의 戈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중국에서는 특히 전국시대부터 秦·漢을 거쳐 晉代까지도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료에 의하면 고구려의 주무기로 사용되어졌던 것으로도 이해된다.¹⁶⁾ 송절동고분군에서 출토된 극은 漢代의 극과 그 형태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 극의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

16) 『周書』異域列傳 高句麗, “兵器有甲弩弓箭戟稍矛鋌”

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유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송절동고분군의 극은 3세기 중반을 중심시기로 하는 이 시기에 중국과의 교류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표 24> 漢代 戟과 송절동고분군 92-4호 토광묘 출토 戟

漢長安城武庫遺址 (白云翔, 2005, 230쪽.)	송절동고분군 92-4호 토광묘 출토 戟과 矛 (충북대학교박물관, 1994)
	

Ⅲ기는 C형식의 철모가 주를 이루는 단계로 소량이지만 분묘뿐만이 아니라 주거지 등의 생활 유구에서도 철모가 출토되고 있다. Ⅲ식의 철모가 출토되는 유구에서 공반되는 대표적인 유물은 단경호를 비롯하여 파배, 평저호 등이 있다. 이러한 출토 양상은 주변에서 발굴조사 된 청주 봉명동 유적의 출토양상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봉명동 유적의 중심시기인 4세기 중반 이후를 중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철모의 변화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형식상의 변화는 관부의 형

태로 볼 수 있다. 관부의 형태 변화는 무기로서 모의 활용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I기의 모는 관부의 형태가 심하게 벌어지고 단면형태는 편능형으로 신부의 양쪽에 날을 조성하고 봉부를 날카롭게 한 형식으로 공부의 길이가 짧고 신부가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돌출된 관부와 함께 인부가 길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베는 용도가 더욱 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반 상태가 같은 유구에서 도는 출토되지 않고 축이 공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당시의 병종체계가 창병과 궁수를 중심으로 한 보병 위주의 편성이었음을 짐작케 한다(성정용 2000).

II기의 모의 관부는 돌출 정도가 I에 비하여 축약되기 시작한다. 점차 신부의 길이가 짧아지고 단면 형태는 I기에 비하여 능각이 부각된다.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I기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 본연의 찌르는 용도로서의 기능적 측면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I기의 모는 관부의 형태가 완전히 축약형으로 변화하면서 관부와 연미형의 공부말단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부 말단의 변화는 모의 결구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직기형 보다는 연미형의 공부가 모를 대량으로 제작하기에 유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단면의 형태도 편능형에서 능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II기에서 찌르는 기능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하고 III기에 이르러 본연의 찌르는 기능이 집중되는 형태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馬具類

마구류는 5점이 출토되었다. 마구류에 포함되는 유물은 재갈만 확인된다. 재갈은 토광묘에서만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의 수량도 한정적이지만 그나마도 완형으로 출토된 예가 없기 때문에 변화상을 검토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 도굴된 상태로 확인되어 공반유물과의 관계를 통한 검토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마구류는 기승문화의 도입 시

기를 판별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류창환, 2004; 박중균, 2005; 성경용 외, 2009; 정한나, 2018; 노형신, 2018). 따라서 마구류의 검토에서는 주변유적과의 비교를 통하여 시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재갈은 말 입에 직접 물리워지는 함, 고삐와 연결되는 인수, 그리고 함이 말의 입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갈쇠멈추개(함溜)로 구성된다(성정용 외, 2009, 108쪽.).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재갈은 모두 토광묘에서만 출토되었다. II-5-15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재갈은 2점의 함과 2점의 인수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고리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출토된 함은 3줄꼬기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인수는 2조선으로 확인된다.

3줄꼬기 기법으로 제작된 함은 인접한 봉명동유적(충북대학교박물관 2005)에서 출토된 13점의 재갈 가운데 11점이 확인되어 봉명동유적의 토광묘 축조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기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성정용 외 2009 : 126-128).

인수는 8자형에 가까운 2조선 인수로 정한나(2018)의 분류안에 따르면 1단계의 짧은 삽자루형과 8자형이 혼합된 형태로 보여진다. 주변의 유적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인수가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산 북천동 69호분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보면 류창환(2000, 181-187쪽.)의 I 기, 정한나(2018, 70쪽.)의 1단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백제 마구의 초기단계로 각각 4세기 중반, 4세기 초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II-5-7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재갈은 양단이 결실된 3줄꼬기 방식의 함으로 봉명동 A-72호 토광묘와 매우 유사하다. 함께 출토된 입문용(立聞用) 금구(b1; 성경용, 2009, 109쪽.) 또한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봉명동 A-72호 토광묘의 것과 형태나 제작기술과 관련된 측면에서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마구류의 편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봉명동유적(충북대학교박물관, 2005)의 마구류가 백제

로 이행하는 과정의 초기단계의 마구류가 출토된 점을 인정하고 있고, 마구류의 계통에 관해서는 충주 금릉동 출토 재갈과 더불어 북방선비계 마구가 도입된 사실에는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다(류창환, 2004; 박중균, 2005; 성정용 외, 2009; 정한나, 2018).

또한 봉명동유적의 토광묘군에서 확인된 묘제와 유물상을 검토해 볼 때, 봉명동 유적의 토광묘군을 청주 송절동 고분군에서 백제 고분군인 신봉동고분군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봉명동유적에서 출토된 마구류의 상한을 4세기 초반으로 하는 편년이 가능하다(박중균, 2005, 205-208쪽.).

그런데 봉명동 C-31에서 출토된 재갈은 함의 형태와 인수의 제작방식에서 청주 송절동 유적의 재갈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봉명동 C-3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2연식의 함에 인수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이다. 함의 제작 방식은 여러 줄의 철봉을 꼬는 기법 대신 1줄의 철봉을 구부려 함을 조성하였다. 인수는 단접하지 않고 리벳을 이용하여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충주 금릉동 78-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가까이는 동북쪽의 길림 榆樹老河深 유적을 필두로 고구려와 낙랑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멀리는 新疆 자치구의 交河故城과 함께 匈奴의 故址인 몽골지역(호드긴 톨고이 1호 분과 노용 울 등)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동서로 대단히 광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성정용 외, 2009, 129쪽.). 봉명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재갈의 제작기법상의 차이는 크게 2군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단접기술이 사용된 재갈은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초기 마구문화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인식된다(성정용 외, 2009, 128쪽.).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는 마구류가 매우 한정적으로 출토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봉명동 유적에서의 출토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편년을 검토해 보았다. 봉명동기의 마구류는 대체로 4세기 초반으로 편년되고 있기 때문에 청주 송절동 유적의 재갈 역시 봉명동 유적의 편년을 그대로 수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원삼국시대 마구류의 출토빈도를 보면 대체로 4세기 무렵에 집중되

고 있다. 송절동고분군 93-4호 토광묘에서 함의 외환부분으로 추정되는 철기가 유개대부호의 뚜껑과 함께 출토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최근에는 청주 오송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8)에서도 비슷한 사례(12지점 9-1호 토광묘·11지점 21-1호 토광묘)가 확인된다. 특히 청주 오송 유적에서의 사례는 거여구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기승문화의 도입 시점은 4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兩端環部棒

기타류의 철기 유물은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유물이 포함된다. 그 중 양단환부봉이 주목된다.

양단환부봉에 대한 형식분류는 세부 속성이 다양하지 않고,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양단환부봉이 동일 유구에서 출토되는 등 형태에 따른 시기성이 반영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양단환부봉의 편년검토는 대체로 공반 출토되는 다른 유물의 편년관계를 통하여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단환부봉의 검토에서는 형태적 분류를 통한 편년검토 보다는 양단환부봉이 가지는 지역성과 시기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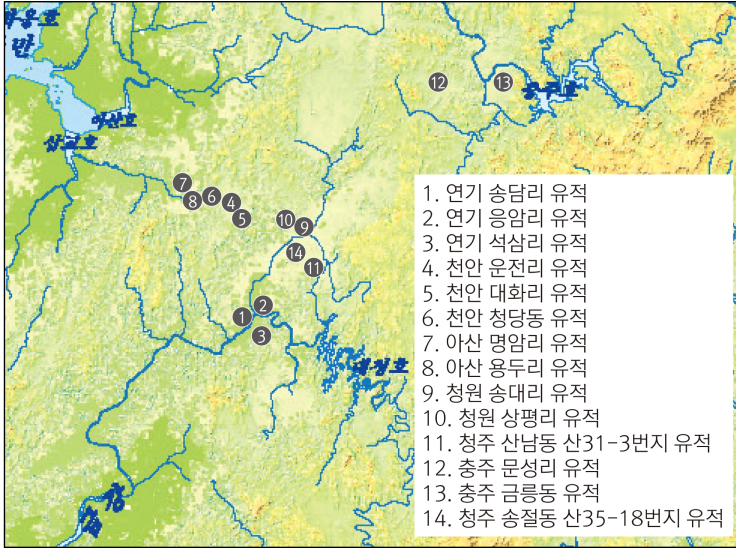
(1) 출토 지역 검토

양단환부봉이 출토된 유적 중 대표적인 유적을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양단환부봉은 주로 곡교천과 미호천 수계를 중심으로 천안·아산지역, 청주·세종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남한강의 중류지역인 충주지역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양단환부봉은 모두 분묘유적에서만 확인이 되었고, 검토의 대상으로 선정한 14개소의 유적에서 60점만이 출토되어 토기류 등의 다른 유물에 비해서 출토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단환부봉이 출토양상을 정리하면 양단환부봉은 모두 <그림 6>에

서와 같이 천안·아산·청주·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곡교천 수계를 비롯하여 미호천과 병천천 수계의 금강 중류역과 남한강 중류역에 조성된 마한의 토광묘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이주헌, 2015, 259-264쪽.). 또한 토기 등의 다른 유물에 비해서 출토빈도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토광묘 축조 집단 내에서도 소수만 부장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 양단환부봉 출토유적 표시도

(2) 시기 검토

양단환부봉이 출토되는 시기에 대한 검토는 앞서 검토의 대상으로 선별된 유적의 편년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표 25> 양단환부봉이 출토된 유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토기의 공반 양상을 보면 대체로 원저단경호와 발형토기가 조합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분묘유적은 3세기 중반 무렵에 축조가 시작되어 4세기 중반까지는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유공토기나 이중구연토기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적의 중심연대를 3세기 후반으로 파악하는 경향이어서 유

적이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동안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이주헌, 2015, 262-264쪽.).

한편 <표 25>의 유적에서 양단환부봉이 출토된 다른 유구에서와는 다르게 충주 금릉동 78-1호 토광묘에서는 재갈이 함께 출토되어 주목된다. 재갈은 인접한 봉명동 유적의 시례에 비추어 4세기 초반의 늦은 시기에 북방의 선비계마구가 도입되면서 기마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류창환, 2004). 또한 마한권역에서는 대체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로 이행되는 시기에 토기의 기종이 다양화되며 경질토기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대형목곽묘, 합장묘, 기승문화의 유입과 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기승문화의 도입이 이러한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주헌, 2015, 264쪽.).

4세기 초반의 북방계 마구류의 등장 이후로 편년되는 유적 중 청주 송절동 유적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한 청주 봉명동 유적에서는 양단환부봉이 더 이상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양단환부봉의 출토 시기상의 하한은 충주 금릉동 78-1호 토광묘를 기점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I-1-99호 토광묘에서는 원저단경호·원저발형토기 조합과 함께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토기조합은 3세기 초·중반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II-1-99호 토광묘에서와 같은 출토양상은 특수한 경우 이기는 하지만 유적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현상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사된 청주 오송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8)에서도 토기조합상 더욱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유개대부호·원저발형토기 단계에도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출토양상을 보면 3세기 중·후반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양단환부봉이 출토되는 시기를 편년하면 3세기 중·후반을 중심으로 부장되며 4세기 초반 무렵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연기 송담리·송원리유적』.

<표 25> 양단환부봉 출토유적 및 공반유물
(이주헌, 2015, 260-262쪽. 인용 후 수정)

연 번	유적명	유구명	수 량	공반유물	편년
1	연 기 송 담 리 유적 ¹⁷⁾	송담리KM-001 호	1	단경호(2)옹(1)철부(1)	3세기 중 반 ~ 4 세 기 중반
2	연 기 응 암 리 유적 ¹⁸⁾	응암리 8-2호	1	환두도(1)마형대구(1)마노 옥(82)유리옥(1971)	3세기 중 반 ~ 4 세 기 중반
3		응암리 12호	1	심발(1)단경호(9)검(1)마 형대구(3)옥(608)	
4	연 기 석 삼 리 유적 ¹⁹⁾	석삼리 5-1호	2	심발(1)단경호(10)양이부 호(1)대옹(1)철촉(12)철검 (1)철검(1)철부(1)철착(1) 교구(1)옥(9)	3세기 중 반 ~ 4 세 기 중반
5		석삼리 32호	1	심발(1)단경호(5)철모(1) 철촉(7)	
6	천 안 운 전 리 유적 ²⁰⁾	운전리A 5호	1	단경호(3)두형토기(4)철모 (1)	3세기 중 반 ~ 4 세 기 중반
7	천 안 대 화 리 유적 ²¹⁾	대화리KM-032 호	1	심발(1)단경호(8)	3세기 중 반 ~ 4 세 기 중반
8	천 안 청 당 동 유적 ²²⁾	청당동 2호	1	심발(1)단경호(2)장경호 (1)도자(1)마형대구(1)유 리옥(248)	3세기 중 반 ~ 4 세 기 중반
9		청당동 20호	1	심발(1)단경호(3)소호(1) 도자(1)철부(1)검(1)곡봉 형대구(1)유리옥(20)마노 옥(121)	
10		청당동 21호	1	심발(1)단경호(8)철부(1)	
11		청당동 22호	3	심발(1)단경호(6)원통형토 기(1)환두도(1)철모(7)철 촉(10)도자(2)철부(2)착(1) 철검(1)철탁4(1)마노옥(1)	

18) 공주대학교박물관, 2008, 『연기 응암리유적』.

19)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4, 『연기 석삼리 대박골 봉기리·반곡리유적』

12	아 산 명 암 리 유적 ²³⁾	명암리2-2지점 13호	1	단경호(8)환두도(1)철모 (1)도자(1)착(1)철부(1)검 (1)옥(88)철촉(8)	3세기 중 반 ~ 4 세 기 중반
13		명암리2-2지점 16호	1	심발(1)단경호(4)철모(2) 철촉(2)철부(1)철착(1)	
14		명암리2-2지점 18호	1	단경호(18)	
15		명암리2-2지점 24호	1	심발(1)단경호(3)	
16		명암리 3지점 1호	3	심발(1)단경호(13)원통형 토기(6)도자(3)환두도(1) 철모(1)철촉(4)철부(3)철 검(1)착(1)교구(2)제갈(1) 격쇠(22)마탁(2)	
17		명암리 3지점 5호	1	심발(1)단경호(12)원통형 토기(11)철부(2)철검(1)철 착(1)철탁(2)제갈(2)격쇠 (12)	
18	아 산 용 두 리 유적 ²⁴⁾	명암리 3지점 16호	1	심발(1)단경호(11)원통형 토기(4)도자(1)철부(1)교 구(1)마형대구(1)	3세기 중 반 ~ 4 세 기 중반
19		용두리 진터 2호	4	철모(3)철부(2)철검(1)	
20		용두리 진터 3호	2	심발(1)단경호(2)철모(3) 철촉(1)관정(1)	
21		용두리 진터 8호	1	발(1)단경호(2)대부호(1) 철부(1)철검(1)	
22		용두리 진터 33호	1	철검(1)	
23		용두리 진터 42호	3	발(1)단경호(4)도자(1)철 검(1)철촉(2)철모(3)철검 (1)철부(1)철착(1)	

20) 충청문화재연구원, 2004, 『천안 운전리유적』.

21)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4, 『천안 대화리·신흥리유적』

22) 국립중앙박물관, 1990, 『휴암리』 고적조사보고 제22책.

국립중앙박물관, 1993, 『청당동』 고적조사보고 제25책.

국립중앙박물관, 1993, 『청당동Ⅱ』 고적조사보고 제27책.

2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 『아산 명암리 밖지프레 유적』.

24	청 원 오 창 유 적 ²⁵⁾	송대리 25호	4	단경호(8)옹(1)발(1)촉(1) 철부(1)철검(1)모(3)	3세기 중 반 ~ 4 세 기 중반
25		송대리 25호	1	단경호(3)발(1)철촉(2)	
26		송대리 25호	2	발(1)단경호(10)	
27		상평리 3호	1	단경호(3)발(1)철촉(5)도 자(1)철부(1)검(1)	3세기 중 반 ~ 4 세 기 중반
28		상평리 4호	1	단경호(12)	
29		상평리 5호	3	단경호(4)철모(4)철촉(2) 철부(2)철착(1)철검(1)철 탁(2)동탁(1)	
30	청 주 산 남 동 산31-3 번 지 유적 ²⁶⁾	산31-3 22호	2	단경호(4)원저호편(3)옹편 (1)동탁(2)	3세기 중 반 ~ 4 세 기 중반
31	충 주 문 성 리 유적 ²⁷⁾	문암 5지점 19호	1	대옹(1)단경호(1)심발(1) 철모(1)재갈(1)옥(35)	4세기 초 반
32		문암 5지점 36호	1	심발(1)단경호(1)철도자 (1)옥(154)	
33	충 주 금 룡 동 유적 ²⁸⁾	금룡동 23호	1	심발(1)철착(1)철부(1)철 검(1)	3세기 중 반 ~ 4 세 기 초반
34		금룡동 63-1호	2	단경호(1) 철검(2)철정(8)	
35		금룡동 78-1호	4	단경호(1)발(1)철촉(10)철 부(1)철검(1)재갈(1)격쇠 (4)철탁(2)철모(6)	
36		금룡동 84-1호	1	발(1)단경호(1)철검(1)철 정(10)관정(19)유리옥(19)	
37		금룡동 86-2호	1	발(1)단경호(1)철부(1)철 검(1)철착(1)마형대구(1) 구슬(44)	
38	청 주 송 절 동 산35-18 번 지 유적 ²⁹⁾	송절동 산35-18 2지점 2호	1	단경호(11)발형토기(1)	3세기 ~ 4 세기

24) 충청문화재연구원, 2011,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

2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청원 오창유적(I)』.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청원 오창유적(IV)』.

IV. 철기유물 변화의 양상과 역사적 의미

동북아시아의 철기시대는 전국시대 말 燕의 철기문화가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 회색도기와 철·철기 생산기술로 대변되는 전국계 철기문화는 먼저 요서지역으로 들어오고 요동을 거쳐 그 일부는 한반도 남부까지 확산된다. 초기단계의 확산은 위만이 망명한 이후 漢惠帝(B.C.195~188) 시기 영역확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하여 중국의 전국시대 말부터 前漢 초반을 중심으로 도입·확산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漢武帝(B.C.141~B.C.87)에 의하여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四郡이 설치(B.C.108)되면서 세형동검과 전국계 철기문화로 대표되는 위만조선계의 문화가 점차 퇴화된다(이성주, 2013).

이 시기에 한무제는 염철전매제를 실시하여 소금과 철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특히 철과 관련된 염철전매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국 50여 곳의 철관에서 생산된 철과 철기를 유통시킴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철관 이외 지역에서의 철 생산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등 철 생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철 생산기술의 유출까지도 통제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김도영, 2015). 그러나 後漢末의 혼란기에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염철전매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철기의 유출과 철 생산 기술의 유출이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지역 2세기 중반 이후의 원삼국시대 유구에서 철기 부장량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청주 송절동 유적 철기의 변화양상은 2세기 중반 무렵부터 4세기

26)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4, 『청주 산남동 산31-3번지 유적』.

27)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충주 화석리·문성리유적Ⅱ』.

28) 충북대학교박물관, 2007, 『충주 금릉동 유적』.

29)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7, 『청주 송절동 산35-18번지 유적』.

중반 무렵까지로 정리된다. 생산공구류는 점차 실용성이 가미된 형태로의 변화가 관측되며, 무기류는 살상력이 증대되는 형태로의 변화가 감지된다. 마구류는 기승문화의 도입을 짐작할 수 있는 표지적인 유물로 전후의 변화를 구분하는 획기로 인식된다. 또한 양단환봉은 출토범위와 시기가 한정되는 특징적인 철기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였던 지역적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유물로서 의미가 있다. 철기의 전체적인 변화양상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보이는 철기의 형식적 변화와 공반 토기와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유물을 편년하고 보면, 철기유물의 변화는 크게 3단계로 설정된다. I 단계 도입기, II단계 정착기, III단계 발전기이다<표 26>.

I 단계 도입기는 철기유물이 출토되기 시작한 시기이다.³⁰⁾ A형식의 정(판상철부형)·부(공부단면 장방형·말각방형·타원형/장방형)·촉(무경만입식)·모(관부돌출/직기형) 주로 출토되었다. 이때 부와 정은 제의적인 기능이 강하고 아직 실용구로서의 기능은 약하였다.

대표적인 공반 토기 유물의 조합은 유개대부호·원저단경호·원저발형토기이다. 이와 같은 유물의 조합은 오산 궐동유적·아산 진터유적 등의 중서부 해안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유적은 대체로 2세기 중반부터 3세기 초반으로 편년된다.

한편 청주 송절동 유적의 철기문화는 2세기 이후 낙랑지역으로부터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낙랑계 유적은 대체로 한강하류와 서해안지역, 북한강지역을 비롯하여 동해안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리적인 요소를 감안한다면 청주 송절동 유적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

30) I 단계 이전에 조성된 유구가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V-2지점에서 단 1기만 확인되었고 철기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주변의 유적에서도 I 단계 이전의 유적은 현재까지 조사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I 단계 이전의 주변 유적에서 철기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검토대상의 공간적 범위를 청주 송절동 유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I 단계를 철기문화의 도입기로 설정하였다.

까운 서해안 지역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화성 기안리 제철 유적이 주목된다. 제철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연료와 철광석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낙랑계 공인집단의 이주 가능성이 지적되었다(김무중, 2004). 마한의 小國으로 유입된 낙랑의 民은 이러한 공인집단의 이주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낙랑 공인집단의 이주가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에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청주를 비롯한 중서부지역의 철기문화는 이들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유입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가 주목된다.

“桓·靈之末，韓濊疆盛，郡縣不能制，民多流入韓國。”(『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 韓)

위 사료는 환제(재위 : 146~168)와 영제(재위 : 168~189) 시기, 대체로 2세기 중·후반의 사정을 전해준다. 이때 韓濊가 강성하여 郡縣이 제어하지 못하였고, 그 민이 韓國으로 다수 유입되었다고 하였다. 이때 韓國은 지금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낙랑이 관할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낙랑의 民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마한의 小國 등으로도 유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I 단계 정의 존재는 청주 송절동 유적의 철기 생산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VII-5-1호·VII-3-2호 제련노가 참고된다. 2기의 노는 모두 주거지와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토층상 제련노의 조업 후 적어도 1세대 정도가 지난 후에 주거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의 조성시기는 대체로 4세기 중반으로 편년된다. 따라서 적어도 4세기 초반 이전에도 제련노의 조업, 다시 말해 철기가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충북대학교박물관 외 2018). 이러한 중복관계는 I 단계 정의 존재와 더불어 청주 송절동 유적의 철기 생산 시점을 2세기 중반부터 3세기 초반까지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표 26> 철기유물 단계설정표

단계	시기	생산공구류						무기류									마구	기타양단환부		
		정		부				도			촉			모						
		A형식	B형식	분기	A형식	B형식	C형식	분기	A형식	B형식	분기	A형식	B형식	C형식	분기	A형식			B형식	C형식
I 단계	100																			
	200			I기							I기									
II 단계																				
	300			II기							II기									
III 단계																				
				III기							III기									

II단계 정착기는 철기유물의 실용성이 높아진 시기이다. 생산공구류에서는 정은 출초되지 않고 B형식의 부가 출토된다. 무기류에서는 A형식(무환두/무관)의 도가 새로이 등장하며 B형식(관부촉약/직기형)의

모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축은 A형식(무경만입식)의 전통이 유지되는 가운데 B형식(무경공부식)과 C형식의 1단경식 축이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Ⅱ단계의 부는 평면 형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인부의 너비가 넓어지면서 실용구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실용적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공구의 일반적인 변화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철기문화가 점차 정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표적인 공반 토기 조합은 복수의 원저단경호와 1점의 평저발형토기이다. 이러한 토기 조합은 천안 대화리·신흥리유적, 청원 오창유적 등 주변 다수의 유적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I 단계에 도입된 철기문화가 정착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농업생산력이 증대되고 이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철기문화의 보급과 관련한 일반적 변화양상으로 파악된다. 개별유물의 편년관계와 유물조합상을 토대로 보면, 3세기 중반~3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이 무렵 마한과 중국 군현의 관계가 주목된다. 3세기 초반 마한과 중국군현은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3세기 중반 우호관계는 대립관계로 변모했다. 위의 동방정책 때문이었다(임기환 2000 : 13-23). 위는 고구려를 비롯해 동예와 옥저에 대해 군사공격을 단행하였고, 낙랑군과 대방군을 통해 마한 諸國을 견제하고자 하였다(노중국, 2003, 57-62쪽.).

이러한 상황에서 마한 小國 중 일부가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마한의 일부 小國들은 쇠락했고, 백제국이 새로운 대표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이병도·김재원, 1959; 이기백·이기동, 1982; 노중국, 1988b). 백제국의 성장으로 마한 小國간의 관계는 재편되었을 것이다. 청주 송절동 유적의 조영집단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양단환부봉이 주목된다. 양단환부봉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주로 청주·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도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양단환부봉이 출토되는 유적의 중심시기는 3세기 중반~4세기 초반으로 편년된다. 양단환

부분과 함께 출토되는 토기에서도 복수의 원저단경호와 평저발형토기가 주로 부장되는 등 유사한 공반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기와 철기의 유사성은 이전 시기부터도 확인되고는 있지만 양단환부봉은 중서부지역 이외에는 출토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이러한 양단환부봉의 존재는 청주·천안 지역 즉 미호천 중류지역과 병천천 유역의 정치집단이 이전시기부터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적어도 4세기 초반까지는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문화를 공유하였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특히 청주지역과 천안지역 정치집단은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주변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변화는 백제국의 성장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즉 양단환부봉은 한강 유역 백제국의 성장에 따라 청주·천안 지역의 정치집단이 이전 시기부터 이어온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결속을 강화한 흔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Ⅲ단계 발전기는 실용성이 강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생산공구류는 B형식의 정(타래형)·C형식(공부 단면 형태 원형/평면 형태 플라스크형)의 부가 중심을 이룬다.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마구류의 재갈이 새롭게 등장한다. 무기류는 B형식(편관·양관/무환두식·환두식)의 도·C형식(2단경식)의 축·C형식(관부 축약형/공부 연미형)의 모가 중심을 이룬다.

철기유물과 함께 출토되는 대표적인 토기는 장동화가 진행된 원저단경호·파배·유공호·평저발형토기(타날) 등이 있다. 이러한 조합은 인접한 청주 봉명동 유적·청주 산남동 42-6번지 유적 등에서 확인된다. 개별 유물의 편년과 공반 출토 토기와의 관계로 보면, 4세기 초반부터 4세기 중반이후로 편년된다.

이 무렵에는 북쪽의 낙랑과 대방은 고구려에 의해 축출되었고, 백제의 성장이 본격화되었다.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³¹⁾

31)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多婁王, “三十六年, 冬十月, 王拓地, 至娘子谷城. 仍遣使新羅請會, 不從”; “三十七年, 王遣兵攻新羅蛙山城, 不克, 移兵攻狗壤城. 新羅發騎兵二千, 逆擊走之”; “三十九年, 攻取蛙山城, 留二百人守之. 尋爲新羅所敗.”; “四十八年, 冬十月, 又攻蛙山城拔之.”; “四十

『三國史記』에 나타난 백제와 신라의 전투지점은 낭자곡성·와산성·구양성·모산성·원산향·부곡성·요거성·장산성·웅곡·괴곡·봉산성이다. 낭자곡성은 청주 북이면 또는 충주지역(김윤우, 1987), 와산성은 충북 보은, 구양성은 충북 옥천, 모산성은 충북 진천, 원산향은 경북 예천, 부곡성은 경북 군위, 요거성은 경북 상주, 장산성은 경북 경산, 웅곡은 경북 선산, 괴곡은 충북 괴산, 봉산성은 경북 영주로 지정된다. 사료에 기록된 주요 지점은 백제가 영남지역으로 남진하는 거점이었다. 대체로 소백산맥의 동쪽 또는 서쪽으로, 백제는 소백산맥을 따라 남진한 것이다. 특히 남진 경로상 보은에서 상주로 넘어가는 화

九年, 秋九月, 蛙山城爲新羅所復”; 肖古王, “二十三年, 春二月, 重修宮室. 出師攻新羅母山城.”; “秋七月, 我軍與新羅戰於狗壤敗北, 死者五百餘人.”; “二十五年, 秋八月, 出兵襲新羅西境圓山鄉, 進圍缶谷城. 新羅將軍仇道, 帥馬兵五百拒之. 我兵佯退, 仇道追至蛙山. 我兵反擊之, 大克.”; “三十九年, 秋七月, 出兵攻新羅腰車城拔之, 殺其城主薛夫. 羅王奈解怒, 命伊伐浪利音爲將, 帥六部精兵, 來攻我沙峴城.”; 『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仇首王, “仇首王五年, 王遣兵圍新羅葦山城. 羅王親帥兵擊之, 我軍敗績.”; “冬十月, 遣兵入新羅牛頭鎮, 抄掠民戶. 羅將忠萱領兵五千, 逆戰於熊谷大敗, 單騎而遁”; “十一年, 秋七月, 新羅一吉浪連珍來侵, 我軍逆戰於烽山下, 不克”; 古爾王, “二十二年, 秋九月, 出師侵新羅. 與羅兵戰於槐谷西, 敗之. 殺其將翊宗”; “冬十月, 遣兵攻新羅烽山城, 不克.”; “二十三年, 秋八月, 遣兵攻新羅烽山城. 城主直宜率壯士二百人, 出擊敗之.”

연도	공격	방어	전투지점	비정지역
다루왕 36년(63)	백제	신라	낭자곡성	충북 청주/ 충주
다루왕 37년(64)	백제	신라	구양성	충북 옥천
다루왕 39년(66)	신라	백제	와산성	충북 보은
다루왕 48년(75)	백제	신라		
다루왕 49년(76)	신라	백제		
초고왕 23년(188)	백제	신라	모산성	충북 진천
초고왕 24년(189)	신라	백제	구양성	충북 옥천
초고왕 25년(190)	백제	신라	원산향/부곡성	경북 예천
초고왕 39년(204)	백제	신라	요거성	경북 상주
구수왕 5년(218)	백제	신라	장산성	경북 경산
구수왕 9년(222)	백제	신라	웅곡	경북 선산
고이왕 22년(255)	백제	신라	괴곡/봉산성	충북괴산/경북영주
고이왕 33년(266)	백제	신라	봉산성	경북 영주

령로를 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을 지나기 위해서는 백제로서는 청주지역에 대한 전략적 확보가 요구되었다(양기석, 2005, 229-231쪽.).

이와 같이 『三國史記』를 보면, 2세기 후반 백제가 청주지역으로 진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문헌사적 견지에서는 이 시기의 기록이 나제 양국이 중부 내륙지역에 진출하면서 대립을 하던 시기에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집단들 간의 대립 사실이 후대 어느 시기에 나제 양국의 초기 역사에 일괄되어 수록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기사の内容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다는 기초를 보이고 있다(양기석, 2005).

이와 관련하여 고고학적으로는 청주 송절동 유적 및 주변 지역에서 3세기 중반은 물론이고 후반까지 백제와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체로 청주 봉명동 유적의 마지막 단계인 4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백제계의 유물이 확인되기 시작하며, 신봉동고분군 축조 단계인 5세기를 전후한 시점에서야 이 지역이 완전히 백제의 영역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 확인된다.

즉,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백제의 성장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인정하지만 청주지역과 인접지역은 아직 백제의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 송절동 유적의 조영집단은 적어도 4세기까지는 독자적인 정치집단으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세기에도 백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에 청주 송절동 유적 조영집단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무기체계의 변화가 주목된다. 무기체계의 변화는 기승문화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승문화의 도입은 무기류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I 단계에서는 도가 등장하지 않고 축과 모를 중심으로 출토되었다. 이는 당시의 병종체계가 창병과 궁수를 중심으로 한 보병 위주의 편성이었음을 짐작케 한다(성정용, 2000). 그러나 III단계에서는 도가 출토되며, 도신부가 이전시기에 비하여 길어지고 관부가 발달하는 특징을 보인다. 도신이 길어지는 것은 살상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축과 모에서도 이러한 맥락의 변

화가 관측된다. 무기류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보병 위주의 병종 체계가 기승문화의 도입과 함께 기병의 편제 또는 대비와 관련된 변화로 이해된다(성정용, 2000, 131-133쪽.).

또한 타래형 정은 Ⅶ지구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제련노·단야로·폐기장 등 철기의 생산과 관련된 시설들이 함께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는 주거지 축조집단이 철기의 생산과 관련된 집단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철기 생산 집단의 존재는 철기가 도입과 정착의 과정을 거치면서 양적·질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청주 송절동 유적 축조집단은 이 시기에 기승문화의 도입과 더불어 직접적인 철기의 생산을 통해 병종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변화를 주도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백제의 성장에 맞서 정치집단을 유지해 가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백제가 신봉동고분군을 조영할 당시에도 여전히 지역의 유력한 세력으로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단계별로 유구 조성 지점이 이동한 점이 주목된다.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조사된 토광묘는 대부분 중복관계 없이 조성되었다. I 단계에 해당하는 지점은 V지구와 Ⅱ-1지점이다. Ⅱ-1지점에서는 동쪽 또는 사면 하단부로 갈수록 미세하게나마 시기가 늦어지는 양상이다. Ⅱ단계에 해당하는 지점은 Ⅲ지구와 Ⅱ-4지점으로 V지구와 Ⅱ-1지점에서 각각 남쪽과 동쪽에 위치하는데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Ⅲ단계에 해당하는 지점은 I 지구와 Ⅱ-5지점, Ⅶ지구로 이어진다. 무덤이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시간적인 변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새로운 무덤을 조영할 당시에 이전 시기의 무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변의 송절동 고분군과 청주 봉명동 유적 또한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무덤축조 지점의 이동 과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구의 축조 지점별 이동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볼 때, 청주 송절동 유적의 축조집단은 적어도 300여년에 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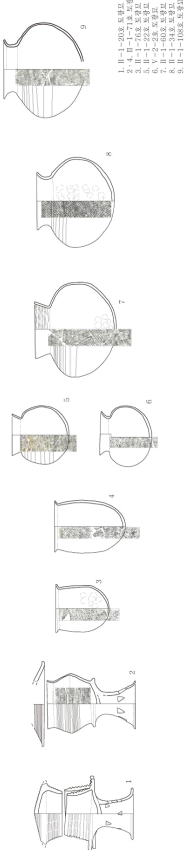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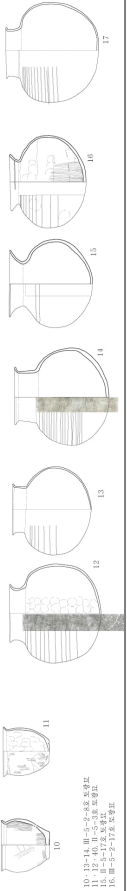
이 지역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성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을 통해서 확인된 생산지역의 존재는 이 지역의 정치체가 청주 송절동 유적 일대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분묘지역과 취락지역, 그리고 생산지역을 분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처럼 청주 송절동 유적의 축조집단은 2세기 중반에서 4세기까지 이 일대의 유력한 정치집단으로 자리하였고, 철기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주변의 정세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림 11> 청주 송절동 유적과 주변 유구 축조 지점 이동 양상

<표 28> 단계별 대표 토기(1/15)

단계	시기	대표 칠기
	100	• • •
I 단계	200	 1. 100% 흑유채 2. 100% 흑유채 + 흰점 3. 100% 흑유채 + 흰선 4. 100% 흑유채 + 흰점 + 흰선 5. 100% 흑유채 + 흰점 6. 100% 흑유채 + 흰선 7. 100% 흑유채 + 흰점 8. 100% 흑유채 + 흰선 9. 100% 흑유채 + 흰점
II 단계	300	 10. 100% 흑유채 + 흰점 11. 100% 흑유채 + 흰선 12. 100% 흑유채 + 흰점 + 흰선 13. 100% 흑유채 + 흰점 14. 100% 흑유채 + 흰선 15. 100% 흑유채 + 흰점 16. 100% 흑유채 + 흰선 17. 100% 흑유채 + 흰점
III 단계		 18. 100% 흑유채 + 흰점 19. 100% 흑유채 + 흰선 20. 100% 흑유채 + 흰점 + 흰선 21. 100% 흑유채 + 흰점 22. 100% 흑유채 + 흰선 23. 100% 흑유채 + 흰점

V. 맺음말

청주지역의 원삼국시대 철기문화 연구는 4세기 무렵의 백제문화의 확산과 관련하여 이해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서 발굴조사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철기의 기종별 편년연구와 지역권 설정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원삼국시대의 철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백제의 영향력이 존재하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청주지역의 정치집단보다 백제의 진출 시점 또는 지배력 확대 과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고대사 및 고고학 연구가 삼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삼국의 ‘주변 지역’은 소외된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발굴조사된 청주 송절동 유적은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다른 유적에 비해 여러 성격의 유적이 종합되어 있어 주목된다. 철기유물 역시 각 유구에서 고루 출토되었다. 따라서 청주 송절동 유적의 철기유물은 당시 이 일대를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집단의 철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출토된 철기유물을 중심으로 변화양상을 통하여 철기유물 변화이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한반도 철기문화의 도입과 확산은 중국과 연관된다. 특히 원삼국시대 중서부지역의 철기문화는 秦·漢시대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맥락에서 철기의 분류는 漢代의 분류안에 따라 진행하였고, 검토대상 철기는 형식적 속성의 변화에 시간의 흐름이 가장 잘 나타나는 기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주 송절동 유적의 철기는 생산공구류의 정·부, 무기류의 도·촉·모, 마구류(재갈)·양단환부봉으로 구분하였으며, 개별 편년의 검토를 통하여 변화상을 도출하였다.

철기의 변화양상은 크게 3단계로 설정하였다. I 단계 도입기, II 단계 정착기, III단계 발전기이다.

I 단계 도입기는 철기유물이 출토되기 시작한 시기이다.¹⁾ A형식의 정(판상철부형)·부(공부단면 장방형·말각방형·타원형/장방형)·촉

(무경만입식)·모(관부돌출/직기형)가 주로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공반 토기 유물의 조합은 유개대부호·원저단경호·원저발형토기이다. 이와 같은 유물의 조합은 오산 궤동유적·아산 진터유적 등의 중서부 해안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유적은 대체로 2세기 중반부터 3세기 초반으로 편년된다.

청주 송절동 유적의 축조집단은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던 지역집단에서 기원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낙랑의 유이민이 서해안로를 통해 유입되면서 철기문화가 보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청주지역의 지역집단은 중서부 해안지역으로부터 철기문화를 수용하면서 한층 성장했을 것이다. I 단계에서 보이는 철정과 무기류의 출토양상으로 보아 청주 송절동 일대를 기반으로한 정치집단은 철기문화를 수용하여 이전보다 체계적인 정치집단으로 변모하면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II단계 정착기는 정은 출토되지 않으며 B형식의 부가 출토된다. A형식(무환두/무관)의 도가 새로이 등장하며 B형식(관부축약/직기형)의 모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축은 A형식(무경만입식)의 전통이 유지되는 가운데 B형식(무경공부식)과 C형식의 1단경식 축이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양단환부봉이 새로이 등장한다. 시기적으로는 3세기 중반부터 3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양단환부봉이 출토되는 중심시기는 3세기 중반부터 최대하한은 4세기 초반으로 편년된다. 양단환부봉은 청주·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도 지역에서만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단환부봉과 함께 출토되는 토기는 복수의 원저단경호와 평저발형토기가 주로 부장되는데 대체로 유사한 공반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단환부봉의 존재는 청

-
- 1) I 단계 이전에 조성된 유구가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V-2지점에서 단 1기만 확인되었고 철기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주변의 유적에서도 I 단계 이전의 유적은 현재까지 조사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I 단계 이전의 주변 유적에서 철기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검토대상의 공간적 범위를 청주 송절동 유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I 단계를 철기문화의 도입기로 설정하였다.

주·천안 지역 즉 미호천 중류지역과 병천천 유역의 정치집단이 이전 시기부터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문화를 공유하였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Ⅲ단계 발전기는 B형식의 정(타래형)·C형식(공부 단면 형태 원형/평면 형태 플라스크형)의 부가 중심을 이룬다. 무기류는 B형식(편관·양관/무환두식·환두식)의 도·C형식(2단경식)의 축·C형식(관부 축약형/공부 연미형)의 모가 중심을 이루며 마구류가 출토된다. Ⅲ단계는 4세기 초반부터 4세기 중반이후로 편년된다.

타래형 철정은 철기의 생산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유물로 다수의 생산시설과 함께 출토되어 철기의 생산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청주 송절동 유적 축조집단은 이 시기에 기승문화가 도입되면서 직접적인 철기의 생산을 통해 병종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주변 유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4세기까지는 지역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독립된 정치집단으로 성장을 지속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주 송절동 유적의 축조집단은 2세기 중반부터 4세기까지 이 일대의 유력한 정치집단으로 자리하였고,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정세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였다. 이후 백제의 문화가 전파되어 신봉동고분군을 축조할 당시에도 여전히 백제를 구성하는 지역 정치집단으로서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투고일: 2019.10.20, 심사개시일: 2019.10.22 게재확정일: 2019.11.30]

【參考文獻】

- 『史記』, 『三國志』, 『三國史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동북아역사넷 <http://contents.nahf.or.kr/>
- 곽종철, 1989, 「낙동강 하구역에 있어서 선사-고대의 어로활동」, 『가야문화』 3, 가야문화연구원.
- 권오영, 1995, 「백제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6, 국사편찬위원회.
- 김도현, 2004, 「고대의 판상철부에 대한 검토」, 『한국고고학보』 53.
- 김도영, 2015, 「동북아시아 철기문화의 전개와 限冶供鐵정책」, 『한국고고학보』 94.
- 김무중, 2004,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 출토 낙랑계 토기에 대하여」, 『백제연구』 40.
- 김무중, 2010, 「낙랑에서 삼한으로-원삼국시대 이주에 대한 사례 검토-」, 『제 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김상민, 2006, 「서남부지역 철부의 형식과 변천」, 『연구논문집』 6, 호남문화재연구원.
- 김상민, 2007, 「영산강유역 삼국시대 철기의 변화상」, 『호남고고학보』 27.
- 김수태, 1998,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마한」, 『마한사연구』, 충남대학교출판부.
- 김신혜, 2009, 「마한·백제권 도의 변천」, 『호남고고학보』 33.
- 김새봄, 2011, 『원삼국후기 영남지역과 경기·충청지역 철모의 교류양상』,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영관, 2008, 「고대 청주지역의 역사적 동향」, 『백산학보』 82.
- 김윤우, 1987, 「낭비성과 낭자곡성고찰-낭비성 위치를 중심으로-」, 『사학지』 21, 단국사학회.
- 김일규, 2007, 「한강유역 원삼국시대의 성립과정」, 『원삼국시대의 한

강유역』, 서울경기고고학회.

김일규, 2018, 『2~3세기 영남지역 토기문화의 변동양상』

김재홍, 1997, 「살포와 철서를 통하여 본 4-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 『과기고고연구』 2, 아주대학교 출판부.

노중국, 1988a,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노중국, 1988b, 「백제사의 재인식」, 『한국고대사론』, 한길사.

노중국, 2003, 「마한과 낙랑,대방군과의 군사 충돌과 목지국의 쇠퇴 - 정시 연간240-248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71.

노형신, 2018, 「원삼국~통일신라시대 재갈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108.

류본조남, 2012, 「한성백제기 편년 재고」, 『백제연구』 55.

류위남, 2009, 『삼한시대 영남출토 주조철부와 판상철부 연구』, 부산 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류창환, 2004, 「백제마구에 대한 기초적 연구」, 『백제연구』 40.

박선미, 2011, 「한반도 출토 덩이쇠[판상철부·철정]의 성격과 의미」, 『백산학보』 89.

박중균, 2005, 「백제 초기 비 소고-청주 봉명동 출토 표비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23.

白云翔, 2005, 『先秦兩漢鐵器的考古學聯句』, 科學出版社 北京.

서오선, 1992, 「천안 청당동 및 안성출토 일괄유물」, 『고고학지』 2, 한국고고미술연구소.

성수일, 2016, 『중서부지역 원삼국~백제 한성기 분묘출토 철기 부장 양상 연구』,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성정용, 2000, 「중서부지역 3~5세기 철제무기의 변천」, 『한국고고학보』 42.

성정용, 2006,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 토기 양상」, 『한국고고학보』 60.

성정용, 2018, 「가야지역의 철 생산과 유통 양상」, 『역사와 담론』 제85집.

- 성정용·권도희·諫早直人, 2009, 「청주 봉명동유적 출토 마구로 본 백제 마구의 변천」, 『호서고고학』 20.
- 성정용·성수일, 2012, 「철정을 통해 본 고대 철의 생산과 유통」, 『한반도의 제철유적』, 한국매장문화재협회
- 신기철, 2016, 『2~4세기 중서부지역 주구토광묘와 마한 중심세력의 변화 추이』, 용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동조, 2008, 『영남지방 원삼국시대 철부와 철모의 분포정형 연구』,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안재호, 1997, 「철검의 변화와 획기」, 『대가야고고학논총』 2.
- 양기석, 2005, 「한성백제의 청주지역 지배」, 『백제 지방세력의 존재양태』, 한국학중앙연구원.
- 양기석, 2013, 『백제 정치사의 전개과정』, 서경문화사.
- 윤용구, 1999, 「삼한의 대중교섭과 그 성격 -조위의 동이경략과 관련하여-」, 『국사관논총』 85.
- 이건무, 1992, 「다호리 유적 출토 붓에 대하여」, 『고고학지』 4집, 국립중앙박물관.
- 이기백·이기동, 1982, 『한국사강좌(1) -고대편-』, 일조각.
- 이남규, 1998, 「3~5세기 금강유역권 철기의 지역적 성격-농공구와 무기를 중심으로」
- 이남규, 1999, 「한반도 고대국가 형성기 철제무기의 유입과 보급-중국과의 비교적 시각」, 『한국고대사연구』 1.
- 이남규, 2005, 「한반도 서부지역 원삼국시대 철기문화-지역성과 전개양상의 특성-」, 『원삼국시대 지역성과 변동』 제 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 자료집.
- 이남규, 2008, 「백제철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론」 『백제 생산기술의 발달과 유통체계 확대의 정치사회적 함의』, 한신대학교학술원·학연문화사.
- 이병도·김재원, 1959, 「백제의 흥기와 마한의 변천」, 『한국사-고대편』, 을유문화사.

- 이상길, 2013, 『원삼국~한성백제기 북한강유역의 철기문화』,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엽, 2018, 「원통형토기를 통해 본 3세기 중반 이후 곡교천유역의 사회상 검토」, 『선사와 고대』 55.
- 이상율, 1990, 「원삼국시대의 문화」, 『고문화』 37.
- 이성주, 2013, 「철기시대 동북아 제지역사회의 기술혁신과 사회변동-신제도기술의 확산과 수용의 과정을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38.
- 이원태, 2013, 「경북 지역 전기 와질토기의 변천과 지역성」, 『한국고고학보』 86.
- 이주현, 2009, 「영남지역 무기·무구부장묘와 피장자의 성격」, 『갈등과 전쟁의 고고학』, 제3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 자료집, 한국고고학회.
- 이주현, 2015, 「양단환봉상철기단상」, 『고손명조선생추모논문집』,
- 이창엽, 2011, 「천안 청당동 분묘군 편년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37.
- 이현혜, 1997, 「3세기 마한과 백제국」,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임기환, 2000, 「3~4세기초 위(魏)·진(晉)의 동방 정책-낙랑군·대방군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36.
- 정인성, 2009, 「가평 대성리유적 출토의 외래계 유물-서북한계 유물을 중심으로-」 『가평 대성리유적』,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정한나, 2018, 『고빼고리가 부가된 재갈의 기능 연구』,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규희, 2013, 『마한·백제권 철축의 변천과정』,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상기, 2014, 『청주지역 3~5세기 토기의 전개양상과 정치체의 변동』,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진수현, 2015, 『3~5세기 중서부지역 철모의 부장환경』, 공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차승연, 2017, 『중서부지역 원삼국시대 원저단경호의 변천과 지역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학과 석사학위논문.
- 차용걸, 2003, 「청주 봉명동 토광묘군」, 『호서고고학보』 8.
- 차용걸, 2005, 「청주 신봉동유적의 고고학적 검토」, 『백제 지방세력의 존재양태』, 한국학중앙연구원
- 차용걸, 2007, 「청주 봉명동 토광묘군의 편년과 성격」, 『충북사학』 18.
- 최영민, 2010, 『한반도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철기문화』,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지선, 2003, 『토기를 통해서 본 백제 고대국가 형성과정 연구』, 중앙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지선, 2007, 「신봉동 백제 고분군 출토 토기 유물」, 『신봉동고분군을 새롭게 보다』, 학연문화사.
- 함재욱, 2010, 『한반도 중·서남부지역 철축의 변천』, 충북대학교 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Abstract】

The Change Aspect and Historical Meaning of Iron Artifacts of Songjeol-dong Site, Cheongju

Seo, Moon-young

The iron culture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in Cheongju has been studied in relation to the spread of Baekje culture around the 4th century. However, until now, most studies have paid much more attention to the time of Baekje's advancement or the process of the expansion of its dominance than the political groups in Cheongju. As Korea's ancient historical and archeological research has revolved around the Three Kingdoms, the "surrounding areas" of the Three Kingdoms have been inevitably neglected.

Under this condition, Songjeol-dong Site in Cheongju, which has been excavated and investigated recently, attracts attention as it is composed of the remains of various characters compared with other sites excavated to date. Iron artifacts were also unearthed from each remains. Therefore, the iron artifacts of Songjeol-dong Site in Cheongju will serve as an important index to understand the iron culture of the political group that prospered around this area at that time.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nge aspects of the iron artifacts unearthed from Songjeol-dong Site in Cheongju and examine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se changes.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iron culture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North-East area of

China. The iron culture of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in the Midwest reg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Qin and Han Dynasty eras. In this context, the classification of ironware was carried out following the Han Dynasty era's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the ironware to be examined was selected among the types that showed the flow of time best based on the changes in formal attributes. The ironware of Songjeol-dong Site was thus classified into production tools including iron bars, axes; weapons including swords, arrowheads, spears, harnessry (bits), and Yangdanhwanbubong. The change aspects of these iron artifact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chronologies of the individual artifact.

The change aspects of the ironware were largely set in the following three phases: Phase I (the phase of introduction), Phase II (the phase of settlement) and Phase III (the phase of development).

Phase I (the phase of introduction) indicates the period from which the dating of the excavated iron artifacts began. Major excavated artifacts include A-type ingots, axes, arrowheads, spears. Typical associated earthen relics are composed of yugaedaebuho (mounted jars with a lid), wonjeodangyeongho(short-necked jars with a round bottom) and wonjeobalhyeongtogi(neckless jars with a round bottom). Phase I is dated to from the mid-2nd century to the early 3rd century.

The group that had established Songjeol-dong Site in Cheongju is presum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local groups that had existed from the previous eras. It is thought that iron culture had spread to the area since the wandering people of Nakrang had flown into it through the West coast. At that time, the local groups in the Cheongju region might have grown even further by accepting iron culture from the Midwest coastal region.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cavated iron ingots and weapons observed in Phase I, it is understood that the political group based on the Songjeol-dong area in Cheongju had transformed itself into a more systematic political group than before and established its identity after embracing iron culture.

In Phase II (the phase of settlement), ingots are not excavated and B-type axes constitute the most of unearthened artifacts. A-type swords are newly included in the group of the artifacts of this phase, which are mostly B-type spears. Arrowheads are maintained in the traditional A-type, while B-type and C-type arrowheads are also excavated. In addition, Yangdanhwanbubong enters the group of the artifacts. Phase II is dated to from the mid-3rd century to the late 3rd century.

It was found that Yangdanhwanbubong was excavated only in the Chungcheong-do region, mainly around Cheongju and Cheonan. Since it is mainly accompanied by a number of wonjeodangyeongho (short-necked jars with a round bottom) and pyeongjeobalhyeongtogi (neckless jars with a flat bottom), it shows similar association aspects in general. The presence of yangdanhwanbubong suggests that the political groups of the Cheongju and Cheonan areas, that is, the midstream Mihocheon River area and the Byeongcheoncheon River area, had shared the culture distinguished from that of other regions based on the relationship formed from the previous periods. In particular, the Cheongju and Cheonan political groups seem to have been influential in the surrounding areas through their strong alliance, and this change might have not been irrelevant to the growth of Baekje.

In Phase III (the phase of development), tools are mainly composed of B-type ingots and C-type. Weapons mostly consist of

B-type swords, C-type arrowheads and C-type spears. Harnessry is also excavated together with them. Phase III is dated to from the early 4th century to the mid-4th century or after the 4th century.

The Tarae-type iron ingots are the most directly related artifacts to the production of iron, indicating that iron had been produced within the area as they are excavated together with a large number of production facilities. The group that had established Songjeol-dong Site in Cheongju led changes such as the reorganization of army branch system through the direct iron production with the spread of horse-riding culture at that time. Given the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 ruins, it is believed that until at least the 4th century, the group had continued to grow into an independent political group with an identity as a local group.

The group that established Songjeol-dong Site in Cheongju had been dominant in the area as a strong political group from the mid-2nd century to the 4th century, and had actively responded to the changes of the surrounding situations based on iron culture. It is considered that the group remained quite influential as a local political group constituting Baekje until the culture of the kingdom had been later introduced to the region, which had led to the construction of Sinbong-dong Tombs.

Keywords : Proto-Three Kingdoms period, 2nd~4th century, The iron culture, Production tools, Harnessry, Weapons, Yangdanhwanbubong, Songjeol-dong Site in Cheongju, Mahan, Baekje.